

2022 봄

농업·농촌경제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 로컬푸드 확대 효과와 인식 변화
- 국내 축사시설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 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와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정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양지아 jigeumaa@krei.re.kr, 서동주 tjsuh@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6
5. 금융·환율	12
6. 세계경제	15

II.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7
2. 농촌 물가	18
3. 농림어업 취업자	23
4. 농축산물 수출입	25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33
2. 엽근채소	38
3. 양념채소	44
4. 과일	51
5. 과채	57
6. 축산	66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 1. 조사 개요 73
-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75

특별주제

- 로컬푸드 확대 효과와 인식 변화 89
- 국내 축사시설 현황과 시사점 101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22년 1/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하였으며,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이 감소하였지만,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됨.
- 2022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83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31만 명으로 나타남.
- 2021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2022년 02월 소매 판매는 준내구재, 비내구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증가에 따라 전월 대비 0.1% 증가함.
- 2022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함.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2.7% 상승함.
- 2022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19.7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29.8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상승함.
- 2022년 02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0.1% 증가하였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6%, 0.4% 증가하였음. 2022년 3월 시장금리(국고채)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증가와 국내 추경 경계감 등의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2.4%로 나타남.
- 2022년 1/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환율은 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원/100엔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함. 원/유로 환율의 경우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021년 4/4분기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6.9%, 중국 4.0%, 일본 1.1%, 유로 0.3% 성장함.

II. 농촌경제 동향

- 2022년 1/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5%, 전기 대비 4.1% 증가함.
- 2022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하락하였으나, 전기 대비 4.0% 상승함.
 - 부류별로 곡물, 청과물,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특용작물, 화훼류는 상승함.
- 2022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전기 대비 5.7%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상승함.
 - 노무비, 경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 13.6% 상승하였으나 자산구입비는 6.0% 하락함.
- 2022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5.9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 악화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4.8%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1.2% 상승하였기 때문임.
- 2022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함.
- 2022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22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11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함.
 - 순수입액은 약 93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로컬푸드 확대 효과와 인식 변화

- 로컬푸드를 핵심 요소로 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함. 본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확대 정책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인식 변화를 생산자와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들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 또는 학교/공공급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로컬푸드 활성화는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의 가격 결정과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로컬푸드 출하 이후 지역 농가의 재배품목이 다양화되었으며, 생산량이 증가하고, 유통비용이 감소하면서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생산자들은 로컬푸드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체득함에 따라 로컬푸드 참여 충성도도 높았음.
- 평소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직매장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전체 식료품 구입비의 35~39%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비자들은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신선도 및 품질과 생산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한 후 지역 농업과 로컬푸드 관련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향후에도 직매장을 이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의 향후 구매 의향이 현실화될 경우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유도하며,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업 기반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지역 먹거리 정책이 확대될 경우 소규모 지역 농가와 지역 농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효과와 파급 영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환경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사업의 수립·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은 농업 생산 규모에 비해 소비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도시 지역은 소비 규모는 크지만 생산 규모는 작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인접 시군 간 연계를 통한 로컬푸드 확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이 주로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일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로컬푸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로컬푸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참여 주체들의 로컬푸드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도 동반되어야 함.

2. 국내 축사시설 현황과 시사점

- 국내 축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FTA 등으로 인한 축산물 시장 개방,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과 함께 악취 문제 등으로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축사시설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 농가는 최근 들어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참여 농가는 4,677호이며, 사업 시행 초기에 참여 비중이 높았음.
-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 1,017호의 농가가 조사에 응답했으며, 축종별로 한우농가 640호, 양돈농가 200호, 낙농가 177호를 조사하였음.
- 한우농가의 농가당 축사 동수는 평균 2.6동이며, 축사의 평균 사용 연수는 번식우사 15.5년, 비육우사 14.9년 등으로 나타남. 낙농가의 축사 동수는 평균 4.5동이며, 축사의 평균 사용 연수는 착유우사 14.4년 등으로 나타남. 양돈농가의 축사 동수는 평균 8.4동이며, 축사의 평균 사용 연수는 비육돈사 14.7년 등으로 나타남.
- 축사 및 축사시설의 신·개축이나 수리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희망 농가 비율은 낙농가가 49.2%로 가장 높으며, 한우농가 43.8%, 양돈농가 36.8%로 나타남. 신·개축 희망 사유(중복응답)는 ‘축사 노후’가 가장 많았으며, ‘ICT 스마트 축사’에 대한 응답 비율도 비교적 높았음.
- 축산업 경영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 받은 경험은 양돈농가 29.5%, 낙농가 21.5%, 한우농가 8.9%로 조사되었음. 민원을 경험한 농가의 민원 유형은 ‘축산 악취’가 양돈 91.5%, 한우 78.9%, 낙농 65.8%로 가장 많았음.
-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로부터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환경문제 완화 및 방역 강화가 필요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 악취 저감 등 환경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환경문제 완화 및 방역 강화가 필요함. 아울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4년으로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음. 주기적이고 지속된 축사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22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성장하였으며,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이 감소하였으나,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됨.
 - 2022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0.6% 증가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소폭 하회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20p					2021p					2022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G D P 성장률	-0.9	-1.3	-3.2	2.2	1.1	4.0	1.7	0.8	0.3	1.2	0.7(3.1)
민간소비	-5.0	-6.6	1.2	0.2	-1.3	3.6	1.2	3.6	-0.2	1.6	-0.5(4.5)
정부소비	5.0	1.6	1.0	0.1	-0.4	5.6	1.6	3.9	1.3	1.3	0.0(6.5)
건설투자	-0.4	0.1	-2.9	-3.9	3.5	-1.6	1.3	-2.3	-3.5	2.9	-2.4(-5.3)
설비투자	7.1	0.1	0.7	5.8	-0.6	8.3	6.1	1.1	-2.4	-0.7	-4.0(-6.0)
총 수 출	-1.8	-0.8	-15.9	16.3	5.3	9.9	2.0	-2.0	1.8	5.0	4.1(9.0)
총 수 입	-3.3	-2.6	-5.8	5.9	1.5	8.6	2.9	2.8	-0.7	4.8	0.7(7.9)

주 1. 2020p, 2021p, 2022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준호 연구원(kjh92@krei.re.kr), 서동주 전문위원(tjsuh@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2.04.26.)」,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4.15.)」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은 감소하였으나 교역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됨.
 - 2022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및 신발 등의 준내구재와 오락문화, 운수,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가 모두 줄어 전기 대비 0.5% 감소함.
 - 2022년 1/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 전기 대비 2.4%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 전기 대비 4.0% 감소하였음.
 -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1%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등이 늘어 0.7%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 및 서비스업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의 증가세가 지속됨.
 - 농림어업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4.1% 증가함.
 -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늘어 전기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 건설 모두 줄어 0.6% 감소함.
 -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등이 늘었으나 운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줄어 전기 대비 0.1% 감소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20p					2021p					2022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농림어업	-0.3	3.4	-8.6	0.0	4.3	-1.6	7.5	-12.7	8.9	1.5	4.1(0.7)
제조업	1.0	-0.1	-9.4	7.5	3.1	-1.6	3.8	-1.3	0.0	1.1	3.4(3.2)
서비스업	-1.0	-2.5	-0.8	1.0	0.6	3.7	0.7	2.1	0.5	1.4	-0.1(4.0)
(도소매 및 숙박음식)	-5.7	-5.5	-3.0	1.2	0.0	3.2	1.5	1.6	-0.9	4.5	0.5(5.8)
(운수업)	-15.1	-11.3	-7.8	2.9	-2.7	5.0	1.5	9.7	-2.7	1.9	-2.7(5.7)
(금융 및 보험업)	9.1	2.5	2.7	2.4	2.3	6.0	2.6	-2.7	3.4	0.4	1.8(2.8)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1.3	-2.6	-2.1	3.6	0.9	4.8	-1.6	2.5	4.1	1.8	0.2(8.9)
(문화 및 기타)	-18.7	-16.2	-7.3	2.8	-0.6	2.6	-2.3	8.0	-1.5	3.1	-3.2(6.1)

주 1. 2020p, 2021p, 2022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2. 고용³⁾

- 2022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3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함.
- 2022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73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였으나, 전기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보면 모든 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2022년 3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는 81만 1천 명, 임시근로자는 16만 6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7만 2천 명 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 5천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 5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 3천 명 감소하였음.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20	2021					2022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경제활동인구	28,012	28,310	27,748	28,596	28,451	28,445	28,360	2.2
(경제활동참가율)	62.5	62.8	61.7	63.5	63.1	63.0	62.7	1.0
취업자	26,904	27,273	26,369	27,467	27,645	27,611	27,369	3.8
• 농림어업	1,445	1,458	1,253	1,537	1,572	1,472	1,310	4.5
• 광공업	4,389	4,380	4,423	4,387	4,322	4,387	4,489	1.5
(제조업)	4,376	4,368	4,410	4,375	4,310	4,376	4,476	1.5
• 건설업	2,016	2,090	1,995	2,107	2,134	2,125	2,071	3.8
• 도소매·음식숙박업	5,647	5,451	5,415	5,506	5,461	5,421	5,424	0.2
실업자	1,108	1,037	1,380	1,129	807	833	990	-28.3
실업률(계절조정)	4.0	3.7	4.3	3.7	3.1	3.4	3.0	-1.3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3월 고용동향(2022.04.13.)」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4.15.)」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21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6% 증가함.
- 2022년 2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Delta 0.6\%$), 비내구재($\Delta 4.4\%$)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구재(9.4%) 증가에 따라 전월 대비 0.1% 증가함.
- 2021년 3월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20	2021p					2022p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p	2월p
민 간 소 비	-5.0	3.6	1.2	3.6	-0.2	1.6	-	-
소 매 판 매	-0.2	5.9	1.7	2.2	0.8	1.1	-2.1	0.1
(내 구 재)1	11.1	5.5	0.9	0.4	-2.1	-0.2	-5.3	9.4
(준내구재)2	-12.4	12.8	2.7	7.7	2.7	2.7	-3.7	-0.6
(비내구재)3	-0.5	3.7	1.8	1.4	1.6	1.1	0.3	-4.4

-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21년, 2022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 2021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2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였으나, 전기 대비 3.2% 감소함.
 -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7%, 11.9%, 8.9%, 5.4% 증가하였어 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하였음.
 - 비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하였음.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4.15.)」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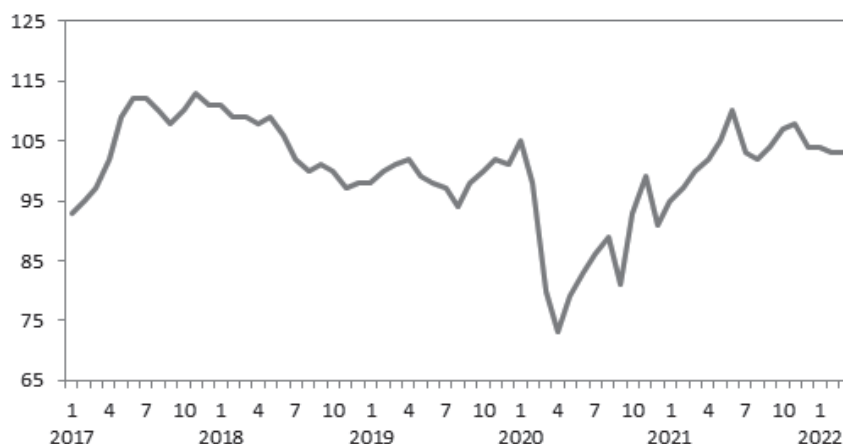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소 득	3.7	4.8	1.6	1.8	-0.7	-1.4	7.6	7.0
경상소득	2.4	4.3	1.2	1.2	0.1	-1.5	7.7	6.9
(근로소득)	1.8	-5.3	-1.1	-0.5	-3.5	4.9	5.7	5.7
(사업소득)	2.2	-4.6	-1.0	-5.1	1.6	5.5	3.3	11.9
(재산소득)	22.4	-11.7	18.5	7.4	-12.7	58.1	-27.5	8.9
(이전소득)	4.7	80.8	17.1	25.1	17.5	-31.4	25.3	5.4
비경상소득	79.8	44.4	33.3	49.1	-30.0	6.3	-1.1	10.9

자료: 통계청

- 2022년 3월 소비자심리지수⁵⁾는 103으로 전년 동기(100)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4. 물가6)

- 2022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는 105.4로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함.
 - 품목성질별로 살펴보면, 상품, 서비스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7%, 3.0% 상승함.
 -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 5.4%, 2.9% 상승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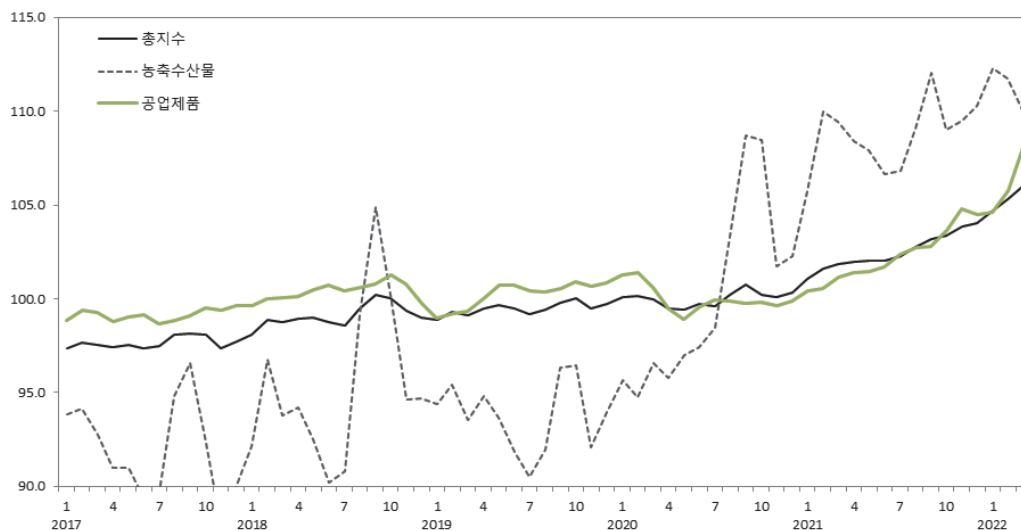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00.0 (0.5)	102.5 (2.5)	101.5 (1.4)	102.0 (2.5)	102.7 (2.5)	103.8 (3.5)	105.4 (3.8)
상 품	100.0 (0.9)	103.1 (3.1)	101.9 (1.6)	102.4 (3.3)	103.2 (3.1)	105.0 (4.4)	106.7 (4.7)
농축수산물	100.0 (6.7)	108.7 (8.7)	108.4 (13.3)	107.7 (11.3)	109.3 (5.6)	109.6 (5.2)	111.3 (2.7)
공업 제품	100.0 (-0.2)	102.3 (2.3)	100.7 (-0.4)	101.5 (2.2)	102.6 (2.8)	104.3 (4.6)	106.1 (5.4)
전기·수도·가스	100.0 (-1.4)	97.9 (-2.1)	98.2 (-5.0)	98.2 (-4.8)	94.5 (0.3)	100.7 (1.4)	101.1 (2.9)
서 비 스	100.0 (0.3)	102.0 (2.0)	101.1 (1.3)	101.7 (1.8)	102.3 (2.0)	102.7 (2.8)	104.2 (3.0)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6) 물가 부문은 통계청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2022.04.05.)」, 한국은행 「2022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2022.04.21.)」, 「2022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2022.04.14.)」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1년 3월 상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3.1% 상승함.
 - －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4%, 6.9%, 2.9% 상승함.
 - －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0%, 0.6%, 4.4% 상승함.
- 2021년 3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교통,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오락·문화, 주류·담배, 교육, 의류·신발은 전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통신, 식료품·비주류 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의 전월 대비 하락함. 기타 상품·서비스는 전월 대비 변동 없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20=100)



자료: 통계청

- 2022년 1/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1.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였으며, 전기 대비 1.6% 상승함.
 - 농산물은 111.3로 전년 동기 대비 0.6% 하락하였지만, 축산물은 115.2으로 9.3% 상승함.
 - 농산물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8% 상승하였지만, 곡물, 채소, 기타 농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1%, 5.8%, 4.8%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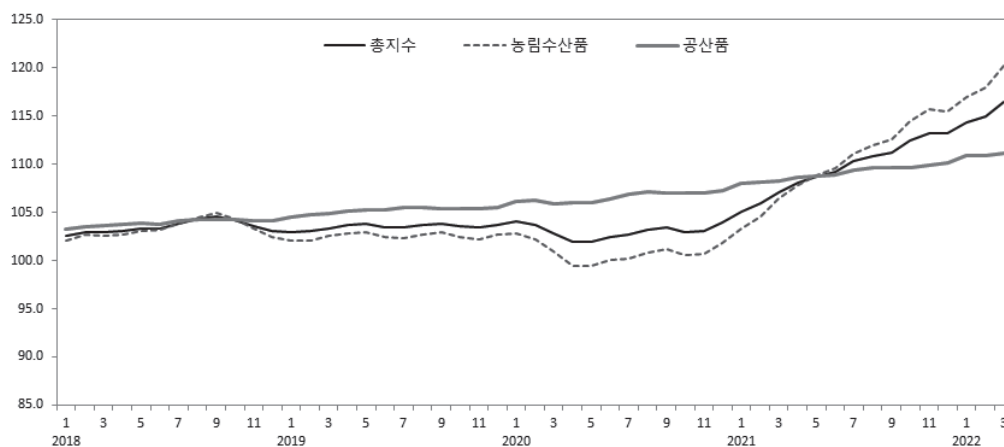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구분	2021					2022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8.7	108.4	107.7	109.3	109.6	111.3	2.7	1.6
농산물	108.3	112.0	107.3	107.4	106.7	111.3	-0.6	4.3
곡물	109.2	109.2	110.0	110.2	107.3	103.6	-5.1	-3.4
채소	104.3	113.8	99.5	101.0	102.8	107.2	-5.8	4.4
과실	111.3	110.4	112.5	111.8	110.2	120.1	8.8	9.0
기타농산물	113.0	115.8	115.4	112.0	108.8	110.2	-4.8	1.4
축산물	112.7	105.4	111.0	116.5	117.8	115.2	9.3	-2.2
수산물	101.4	102.2	101.8	100.2	101.6	102.7	0.5	1.1

자료: 통계청

- 2022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15.3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상승하였음.
 - 2022년 3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축산물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함.
 -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2.3% 상승함.
 -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전력, 가스 및 증기가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100)



자료: 통계청

- 2022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19.7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전기 대비 3.4% 상승함.
- 2022년 3월 수출물가지수는 125.0로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5.7%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4.0%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4.8% 상승함.
- 2022년 1/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29.8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전기 대비 2.3% 상승함. 3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3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9%, 전월 대비 1.0% 상승함.
- 2022년 1/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9.7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전기 대비 3.5% 상승하였으며, 3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2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전월 대비 5.7% 상승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100)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총 지 수	94.7 (-5.2)	108.3 (14.3)	98.3 (1.5)	106.1 (12.3)	113.0 (18.9)	115.7 (25.0)	119.7 (21.8)	118.3 (20.5)	125.0 (22.8)
농림수산물	114.1 (-2.4)	119.0 (4.3)	108.7 (-6.8)	112.9 (-1.9)	127.3 (11.2)	127.0 (15.3)	129.8 (19.4)	129.3 (18.8)	130.6 (18.9)
농 산 물	114.2 (-1.5)	100.9 (-11.7)	105.5 (-8.6)	101.9 (-13.8)	108.4 (-5.7)	87.7 (-19.0)	90.4 (-14.3)	89.0 (-17.2)	90.7 (-11.7)
공 산 품	94.7 (-5.2)	108.2 (14.3)	98.3 (1.6)	106.1 (12.3)	112.9 (18.9)	115.7 (25.0)	119.7 (21.8)	118.3 (20.5)	125.0 (22.9)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2년 1/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40.1로 전년 동기 대비 32.3%, 전기 대비 8.4% 상승함.
- 2022년 3월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광산물,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올라 전년 동월 대비 35.5%, 전월 대비 7.3% 상승한 148.8로 나타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0%, 전월 대비 5.6% 상승함.
 - 2022년 3월 기준 원재료의 경우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3.7% 상승하였으며, 중간재의 경우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5.2% 상승함.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0.7%, 1.3% 상승함.
- 2022년 3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35.1로 전년 동월 대비, 23.2%, 전월 대비 2.4%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100)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총 지 수	99.9 (-8.7)	117.5 (17.6)	105.9 (0.8)	112.8 (14.6)	122.0 (22.8)	129.2 (33.6)	140.1 (32.3)	138.7 (30.7)	148.8 (35.5)
농림수산물	102.7 (0.6)	116.6 (13.5)	106.1 (2.1)	114.0 (9.8)	120.9 (18.3)	125.4 (24.4)	131.7 (24.0)	132.0 (24.3)	135.1 (23.2)
농 산 물	100.2 (1.6)	123.6 (23.4)	110.4 (11.4)	118.1 (19.5)	128.5 (28.2)	137.5 (34.0)	148.1 (34.1)	150.9 (36.6)	152.4 (34.0)
공 산 품	101.8 (-2.5)	111.5 (9.5)	104.2 (0.4)	108.5 (6.1)	114.6 (12.1)	118.9 (20.1)	124.6 (19.6)	123.9 (18.9)	128.7 (20.2)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⁷⁾

- 2022년 2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1% 증가)함.
- 2022년 2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6%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 MMF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22년 2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21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M1 ¹	25.2	26.0	24.5	24.2	22.3	21.3	20.5	20.0	19.7	18.0	17.6	15.6	14.3	11.6
M2 ²	10.1	10.7	11.0	11.4	11.0	10.9	11.4	12.5	12.8	12.4	12.9	13.2	12.7	11.8
Lf ³	8.6	8.9	9.3	9.5	9.2	9.4	9.9	10.4	10.6	10.2	10.6	10.7	10.6	9.9
본원통화 ⁴	16.5	20.2	18.7	17.5	15.7	16.4	15.8	15.2	14.7	16.1	14.9	15.0	15.6	11.9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22년 2월 통화 및 유동성(2022.04.12.)」과 「2022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2021.04.13.)」, 「2022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2.04.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1년 3월 국고채(3년) 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증가와 국내 추정 경제감 등의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2.4%로 나타남.
- 코스피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원자가격 움직임 등 주로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2,700 내외에서 등락함.
- 2022년 3월 회사채는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발행 및 투자 수요 모두 둔화되면서 순상환으로 전환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21										202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국고채(3년)	1.1	1.1	1.1	1.3	1.4	1.4	1.5	1.8	2.0	1.8	2.1	2.3	2.4
회사채 ¹	2.1	2.0	1.9	1.9	1.9	1.8	2.0	2.3	2.5	2.4	2.6	2.9	3.0
CD유통수익률 (91일)	0.8	0.7	0.7	0.7	0.7	0.8	1.0	1.1	1.2	1.3	1.4	1.5	1.5
콜금리 ²	0.5	0.5	0.5	0.5	0.5	0.6	0.8	0.7	0.8	1.0	1.2	1.2	1.2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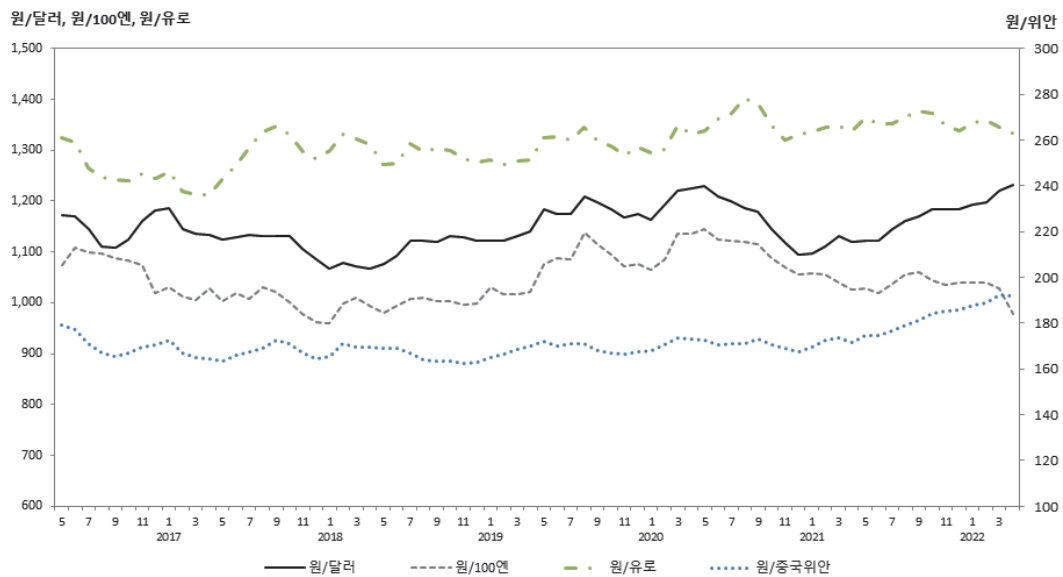
- 2022년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22원 상승한 1205원임.
 - 2021년 3월 원/달러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기대,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급등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됨.
- 2022년 1/4분기 엔화 환율은 1,040원/100엔으로 전기 대비 0.4% 하락하였으며, 위안 환율은 190원/위안으로 전기 대비 2.5% 상승함. 유로화의 경우 1,352원/유로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022년 3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전월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음.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원/달러	1,180	1,144	1,114	1,121	1,157	1,183	1,205	1,194	1,198	1,221	1,232
원/100엔	1,105	1,041	1,051	1,024	1,051	1,040	1,036	1,040	1,040	1,029	977
원/유로	1,346	1,353	1,343	1,351	1,365	1,353	1,352	1,353	1,360	1,345	1,334
원/위안	171	177	172	174	179	185	190	188	189	192	192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⁸⁾

- 미국 경제는 양호한 고용상황을 바탕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됨.
- 중국 경제는 비교적 완만한 물가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도시 봉쇄 등의 영향으로 심리지표가 악화됨.
- 일본 경제는 코로나 확산 및 방역 규제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연속 하락하였으며, 수출액 증가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7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유럽 경제는 에너지 및 식료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경제 심리도 악화됨.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4.15.)」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3.4	5.7	6.3	6.7	2.3	6.9	-	-
	산업생산(전기비)	-7.2	5.6	1.0	1.6	0.8	0.9	1.4	0.5
	소매판매(전기비)	0.5	19.3	8.1	6.6	-0.5	2.2	5.1	0.8
	실업률(계절조정)	8.1	5.4	6.2	5.9	5.1	4.2	4.0	3.8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4.7	1.9	4.8	5.3	6.7	7.5	7.9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2.2	8.1	18.3	7.9	4.9	4.0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8	9.6	24.5	9.0	4.9	3.9	7.5	
	소매판매(전년동기비)	-3.9	12.5	33.9	14.1	5.1	3.5	6.7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5	0.9	0.0	1.1	0.8	1.8	0.9	0.9
일본	실질GDP(전기비)	-4.5	1.7	-0.5	0.6	-0.7	1.1	-	-
	산업생산(전기비)	-10.3	5.8	2.8	1.2	-3.7	1.0	-0.8	0.1
	소매판매(전기비)	-3.4	1.9	-0.1	-0.8	0.4	1.5	-0.9	-0.8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5	-0.7	-0.2	0.5	0.5	0.9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6.4	5.3	-0.1	2.2	2.3	0.3	-	-
	산업생산(전기비)	-7.9	7.9	1.8	-0.4	-0.8	-0.2	0.0	-
	소매판매(전기비)	-0.8	5.0	-1.4	3.8	1.3	0.5	0.2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3	2.6	1.1	1.8	2.8	4.6	5.1	5.9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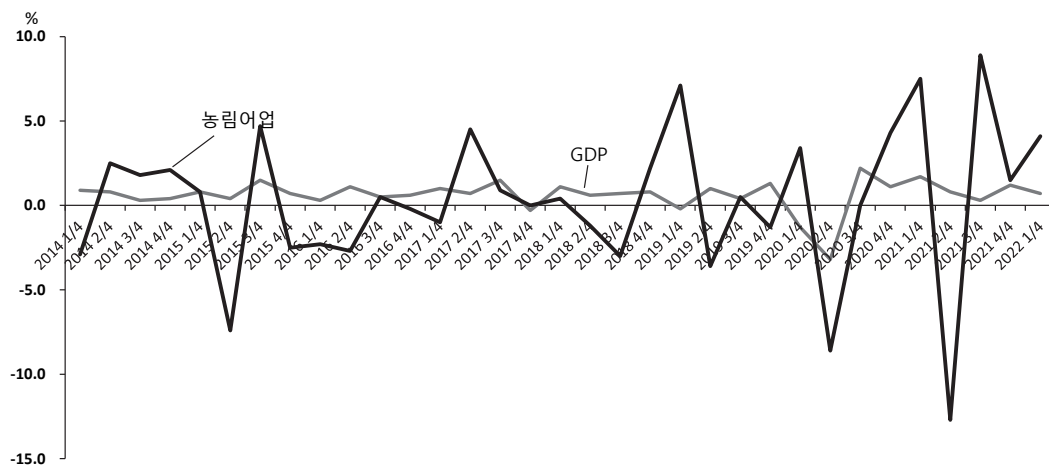
II. 농촌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22년 1/4분기 8조 7,2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전기 대비 4.1% 증가함.
 - 2022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87조 1,0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전기 대비 0.7% 증가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9년 4/4분기,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재휘 연구원(raccoon_kjh@krei.re.kr), 서동주 전문위원(tjsuh@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22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하락하였으나, 전기 대비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청과물,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특용작물, 화훼류의 경우는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20	2021	2020	2021	2021	2022	등락률(%)	
		연간	연간	4/4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7.0	128.7	119.9	133.7	122.4	127.3	-4.8	4.0
곡물	200.1	127.5	138.1	129.7	144.9	129.6	136.3	-5.9	5.2
-미곡	146.0	129.0	139.0	129.2	146.1	130.7	137.2	-6.1	5.0
-맥류	8.7	104.7	87.8	91.4	60.3	93.8	116.2	92.7	23.9
-두류/잡곡	27.5	137.1	164.0	150.1	170.4	160.6	152.0	-10.8	-5.4
-서류	17.9	110.9	115.8	120.8	136.5	90.7	115.1	-15.7	26.9
청과물	314.0	133.6	141.0	136.8	155.7	126.7	142.0	-8.8	12.1
-채소	196.1	118.6	122.5	142.5	160.0	125.7	133.8	-16.4	6.4
-과수	117.9	158.5	171.9	127.4	148.4	128.3	155.8	5.0	21.4
축산물	378.3	101.8	116.8	103.7	110.7	115.5	108.6	-1.9	-6.0
-가축	240.7	105.5	116.3	107.0	106.6	117.7	107.6	0.9	-8.6
-기타	137.6	95.3	117.6	97.8	117.9	111.7	110.3	-6.4	-1.3
기타농산물	107.6	102.2	117.5	109.6	129.9	120.8	133.6	2.8	10.6
-특용작물	64.7	97.5	115.4	103.5	123.8	112.7	127.2	2.7	12.9
-화훼	39.3	109.6	122.4	119.8	142.5	135.5	145.9	2.4	7.7
-부산물	3.6	106.0	102.0	107.5	100.8	105.5	113.2	12.3	7.3

자료: 통계청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6.3으로 맥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품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함.
 - 잡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하였지만 멥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3% 하락하여, 미곡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동기대비 6.1% 하락함.
 - 맥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쌀보리, 맥주보리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6.0% 하락하였지만, 보리쌀 가격은 107.9%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92.7% 상승함.
 - 두류/잡곡 농가판매가격지수의 경우 옥수수, 콩, 팥, 검정콩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8%, 6.4%, 30.9%, 3.8%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8% 하락함.
 - 서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감자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7.8% 상승하였지만, 고구마 가격은 42.4%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7% 하락함.
- 채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3.8로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6.4% 하락함.
 - 엽채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양배추와 상추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1.5%, 7.6% 하락하였지만, 배추, 시금치, 미나리, 부추, 깻잎 가격은 각각 15.8%, 18.8%, 37.3%, 14.0%, 26.5%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16.7% 상승함.
 - 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무, 당근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8%, 11.4%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32.1% 하락함.
 - 조미채소류의 경우 마늘 가격이 70.9% 상승하였지만, 대부분의 조미채소 가격은 하락하여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1% 하락함.
 - 과채류는 호박과 참외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8.3%, 2.1% 하락하였지만, 대부분의 과채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8% 상승함.

- 과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55.8로 사과, 배를 제외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5.0%, 전기 대비 21.4% 상승함.
 - 사과와 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각각 28.6%, 26.1% 하락하였으나, 그 외 과수 품목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8.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전기 대비 6.0% 하락함.
 - 가축의 경우 한우(암, 수), 한우송아지(암, 수), 육우송아지, 젓소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1.6%, 31.4%, 17.4%, 13.1%, 5.2% 하락하였지만, 육우, 성돈, 자돈, 육계, 오리 가격은 각각 5.1%, 13.4%, 17.7%, 19.9%, 21.0% 상승하여 가축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함.
 - 기타축산물의 경우 우유, 벌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11.1% 상승하였지만, 계란 가격은 15.8% 하락하여 기타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6.4% 하락함.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22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2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전기 대비 5.7% 상승함.
- 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37.5로 전년 동기 대비 32.3%, 전기 대비 19.2% 상승함.
 -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3%, 149.4%, 7.9%, 17.3%, 38.1% 상승함.
- 노무비와 경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각각 141.4, 117.1로 전년 동기 대비 10.7%, 13.6% 상승하였지만, 자산구입비는 111.0으로 6.0% 하락함.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22년 1/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33.5로 전년 동기 대비 26.3%, 전기 대비 13.4%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20	2021	2020	2021	2021	2022	등락률(%)	
		연간	연간	4/4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6.1	111.1	106.4	108.1	113.7	120.2	11.2	5.7
가계용품	484.8	106.1	108.9	106.5	108.0	110.1	111.8	3.5	1.5
재료비	250.6	101.8	110.0	102.9	103.9	115.4	137.5	32.3	19.2
-종자종묘	27.5	115.9	116.1	118.6	113.4	117.6	125.1	10.3	6.4
-비료비	39.0	77.9	83.7	77.9	78.6	88.8	196.0	149.4	120.7
-농약비	29.3	118.9	120.8	118.9	120.8	120.8	130.4	7.9	7.9
-사료비	136.0	102.1	113.6	103.4	105.5	120.5	123.8	17.3	2.7
-영농자재비	18.7	102.6	112.8	102.6	104.3	122.4	144.0	38.1	17.6
노무비	45.0	124.2	135.3	128.1	127.7	140.9	141.4	10.7	0.4
경비	129.0	103.3	107.5	100.1	103.1	112.2	117.1	13.6	4.4
-영농광열비	32.6	87.1	108.6	80.3	92.0	127.0	142.7	55.1	12.4
-임차료	40.5	112.4	114.5	114.1	114.1	114.6	114.6	0.4	0.0
-농작업위탁비	42.5	108.5	103.4	103.1	103.1	103.3	103.3	0.2	0.0
-판매자재비	13.3	98.0	96.5	96.5	96.5	96.5	106.1	9.9	9.9
자산구입비	90.6	113.2	118.6	113.6	118.1	116.8	111.0	-6.0	-5.0
-기계구입	58.9	104.3	104.5	103.9	104.2	105.0	105.4	1.2	0.4
-가축구입비	31.7	129.6	144.9	131.6	143.8	138.6	121.4	-15.6	-12.4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2022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5.9로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하였으며, 전기 대비 1.6%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2% 상승하였기 때문임.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20	2021	2021	2022	등락률(%)	
	4/4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19.9	133.7	122.4	127.3	-4.8	4.0
농가구입가격(B)	106.4	108.1	113.7	120.2	11.2	5.7
농업투입재가격(C)	104.0	105.7	117.8	133.5	26.3	13.4
농가교역조건(A/B×100)	112.7	123.7	107.7	105.9	-14.4	-1.6
농가경영조건(A/C×100)	115.2	126.5	103.9	95.4	-24.6	-8.3

3. 농림어업 취업자

- 2022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였지만, 전기 대비 11.0% 감소함.
 -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56만 6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전기 대비 5.3% 증가함.
 - 농림어업 취업자들 중 전체 남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84만 7천 명, 여성 수는 3.1% 증가한 46만 3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61만 6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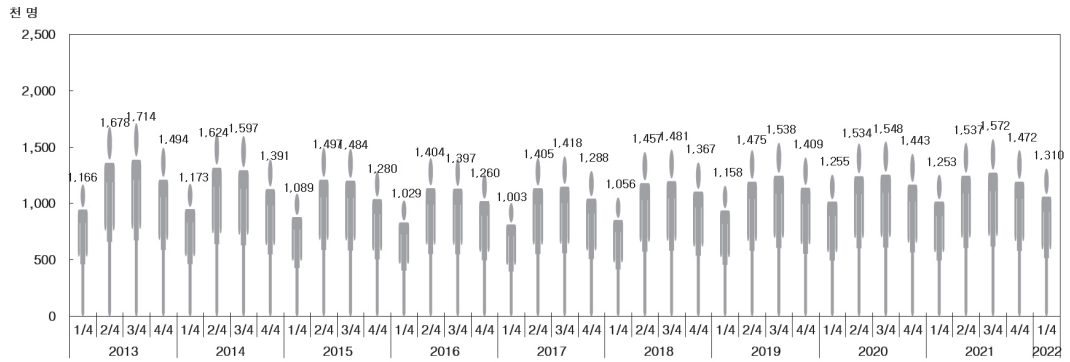
구 분		2020		2021	증감률(%)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26,369	27,611	27,369	3.8	-0.9
	(계절조정)	(26,871)	(27,531)	(27,887)	3.8	1.3
	농림어업	1,253	1,472	1,310	4.5	-11.0
	(계절조정)	(1,501)	(1,487)	(1,566)	4.3	5.3
	남성	804	910	847	5.3	-6.9
	여성	449	561	463	3.1	-17.5
	농가	1,580	1,772	1,616	2.3	-8.8
	농가남성	938	1,024	957	2.0	-6.5
	농가여성	643	748	659	2.5	-11.9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2020년 계열을 추가하여 계절조정인자를 재작성함에 따라 1999년 6월 이후 계절조정 자료가 변경됨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4/4분기에서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2년 1/4분기는 주춤했던 2021년과 달리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22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101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함.
 - 곡류, 채소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6.7% 감소하였지만, 과실류는 13.7% 증가하여 전체 농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함.
 - 포유육류와 가금육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 77.3% 증가하여 축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함.
 -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 27.1% 증가함.
- 2022년 1/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2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의 경우 곡류, 과실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 10.7%, 증가하였으나 채소류는 10.8%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함.
 - 가금육류, 낙농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8%, 15.3% 증가하였으나 포유육류는 4.0% 감소하여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함.
- 2022년 3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8억 2,657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6%, 전월 대비 21.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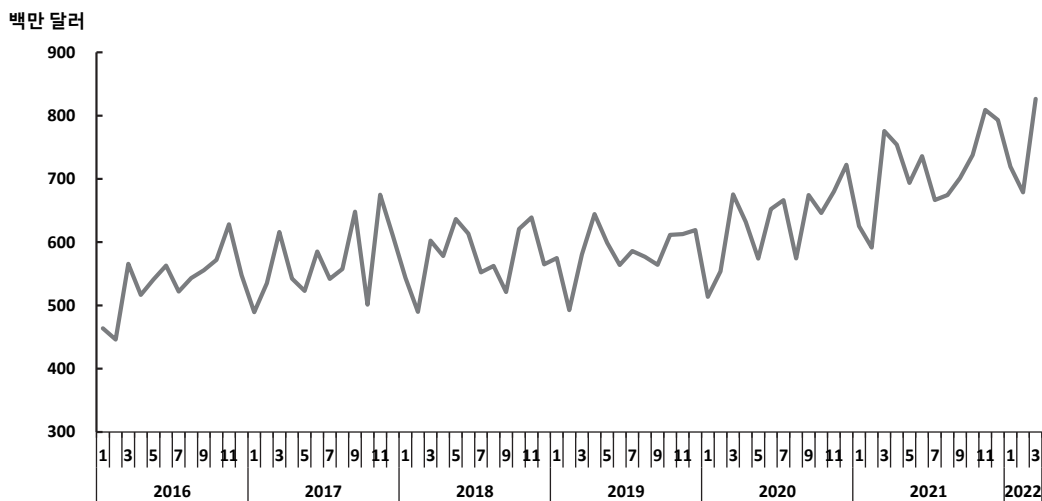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0		2021		202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4		1/4		4/4		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84	2,048	950	1,993	1,027	2,340	1,016	2,225	6.9	11.7
농산물	779	1,818	741	1,768	846	2,068	801	1,960	8.1	10.9
-곡류	13	10	11	9	14	11	11	9	-1.3	7.6
-과실류	50	140	28	82	51	163	31	90	13.7	10.7
-채소류	38	122	33	142	36	122	30	127	-6.7	-10.8
축산물	50	131	39	120	51	156	49	149	26.0	24.2
-포유육류	1	7	1	7	2	10	2	7	10.2	-4.0
-가금육류	15	19	8	13	14	24	15	21	77.3	65.8
-낙농품	10	42	10	42	10	50	10	48	1.3	15.3
임산물	155	99	170	105	130	116	165	116	-2.8	10.7
수 산 물	166	653	165	567	261	862	226	785	37.5	38.4
전 체	1,150	2,701	1,115	2,560	1,287	3,202	1,242	3,010	11.4	17.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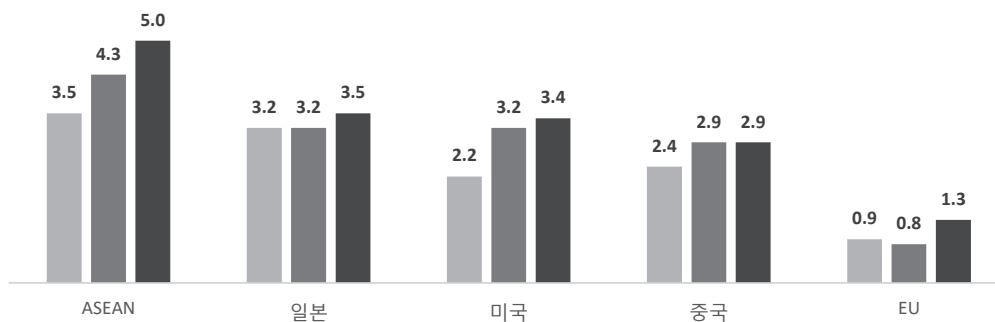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22년 1~3월 농축산물 수출액은 2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14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함.
 - 주요 수출대상국 중 ASEAN, 일본, 미국, EU 등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그중 對ASEAN 수출액이 15.8%로 가장 많이 증가함.
- 2022년 1/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79.5로 전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²⁾
 - 세부 항목별로는 설비가동률(101.2)은 개선되나 국제수급(68.7), 수출 채산성(68.8), 수출상품 제조원가(69.6) 등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출 애로사항으로는 물류비용 상승(29.0%)과 원재료 가격 상승(25.4%)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 평년 ■ 2021년 ■ 2022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2년 1분기」.

2) 한국무역협회, '2022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2021.12.27).

4.2. 수입 동향

- 2022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372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7.1%, 1.2% 증가함.
- 2022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15억 8,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함.
 -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1%, 29.1%, 20.4% 증가함.
 - 농산물 중 곡류 수입액은 쌀, 호밀, 율무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밀 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43.1% 증가함.
 - 과실류 수입액은 망고, 레몬 등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오렌지, 포도, 바나나 등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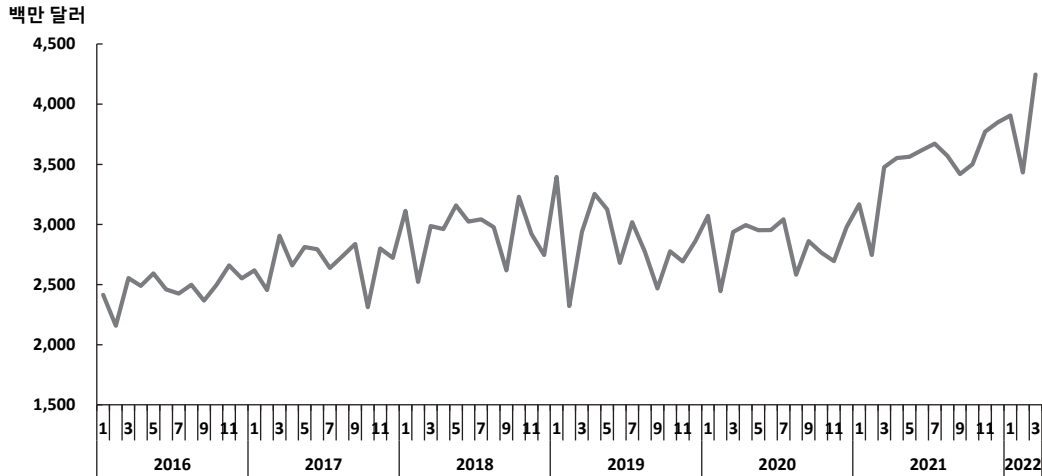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0		2021				202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4		1/4		4/4		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339	8,439	13,436	9,389	13,836	11,119	13,725	11,586	2.2	23.4
농 산 물	8,734	5,111	8,927	5,707	9,232	6,771	9,134	6,968	2.3	22.1
-곡류	3,980	888	4,080	1,070	4,449	1,486	4,220	1,531	3.4	43.1
-과실류	267	403	312	549	252	435	270	543	-13.3	-1.2
-채소류	343	278	334	275	300	301	278	287	-16.8	4.6
축 산 물	402	1,801	467	2,108	451	2,409	499	2,722	7.1	29.1
-포유육류	213	1,075	255	1,372	239	1,509	294	1,846	15.4	34.5
-가금육류	47	107	49	105	44	108	47	125	-4.0	19.4
-낙농품	77	275	91	328	94	357	93	362	2.1	10.5
임 산 물	4,203	1,527	4,043	1,574	4,154	1,940	4,091	1,896	1.2	20.4
수 산 물	1,408	1,545	1,622	1,444	1,935	1,849	1,599	1,713	-1.5	18.6
전 체	14,746	9,984	15,059	10,834	15,771	12,967	15,324	13,299	1.8	22.8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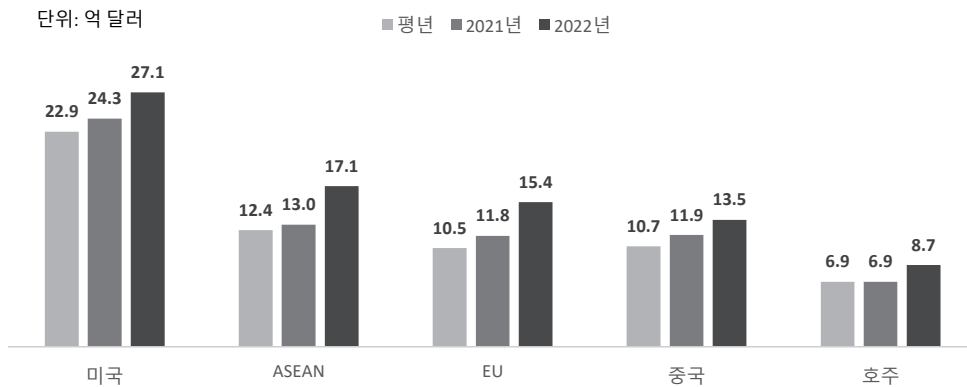
- 2022년 3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42억 4,662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2%, 전월 대비 23.7%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22년 1분기」.

- 2022년 1~3월 농축산물 수입액은 11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95억 1천만 달러로 19.7% 증가함.
 - 주요 수입국인 미국, ASEAN, EU, 중국, 호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7%, 31.6%, 29.7%, 13.2%, 26.1% 증가함.

4.3. 순수입 동향

- 2022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270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833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45만 톤임.
- 2022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한 93억 6,100만 달러임.
 - 농산물, 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1%, 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1년 1/4분기		2022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486	7,397	12,709	9,361	1.8	26.6
농 산 물	8,185	3,940	8,333	5,008	1.8	27.1
축 산 물	427	1,988	450	2,573	5.3	29.4
임 산 물	3,873	1,469	3,926	1,780	1.4	21.1
수 산 물	1,458	877	1,372	928	-5.9	5.8
전 체	13,944	8,274	14,082	10,288	1.0	24.4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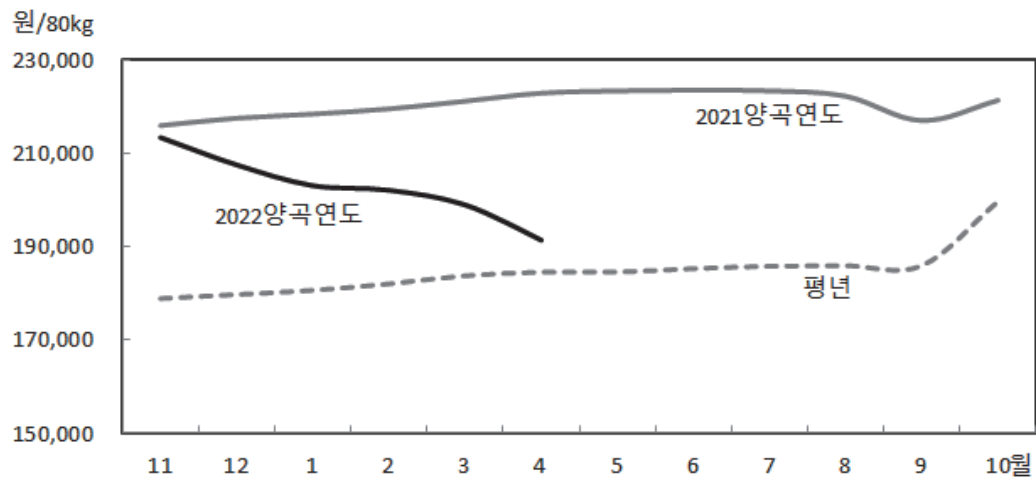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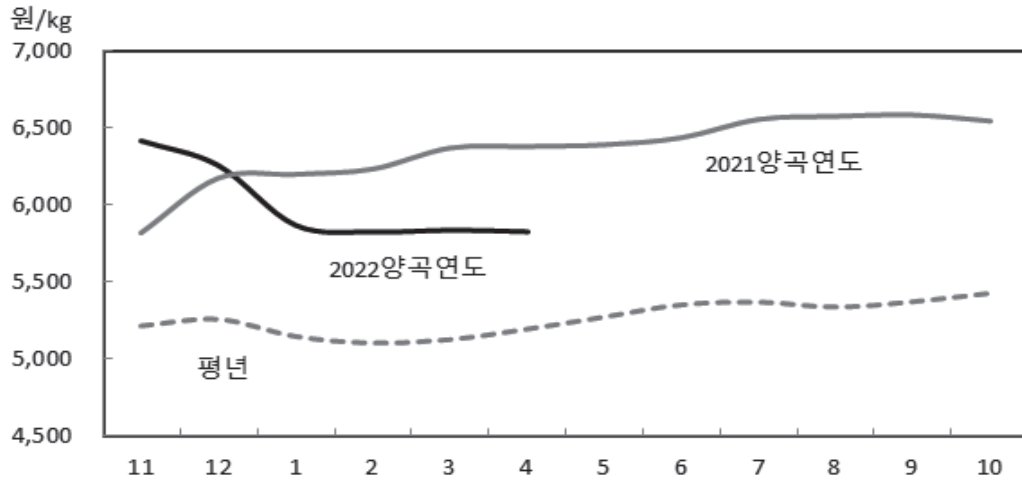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최근 5개년(2017~2021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조남욱 전문연구원(ukjo@krei.re.kr), 김지연 전문연구원(jykim12@krei.re.kr), 박한울 전문연구원(phu87@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이진아(jina1008@krei.re.kr), 강윤정(kangyj@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22년 1분기 동향
 - 1분기 산지 쌀 가격은 20만 1,408원/80kg(50,352원/20kg 기준)으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8.4% 하락
 - 이는 정부 1차 시장격리 규모(14.4만 톤)가 과잉물량(27만 톤)보다 적고, 쌀 판매도 부진해 산지유통업체 재고가 전년 대비 늘었기 때문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산지 쌀 가격은 19만 1,409원/80kg으로 1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 14.2% 하락
 - 2분기 산지 쌀 가격은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12.6만 톤)에도 재고 부담이 큰 업체들의 저가 출하가 예상되어 하락세 지속 전망
 - ※ 산지유통업체 재고(4.20.기준) 전년 대비 58.0% 증가(38만 톤 ↑)

1.2. 콩

국산 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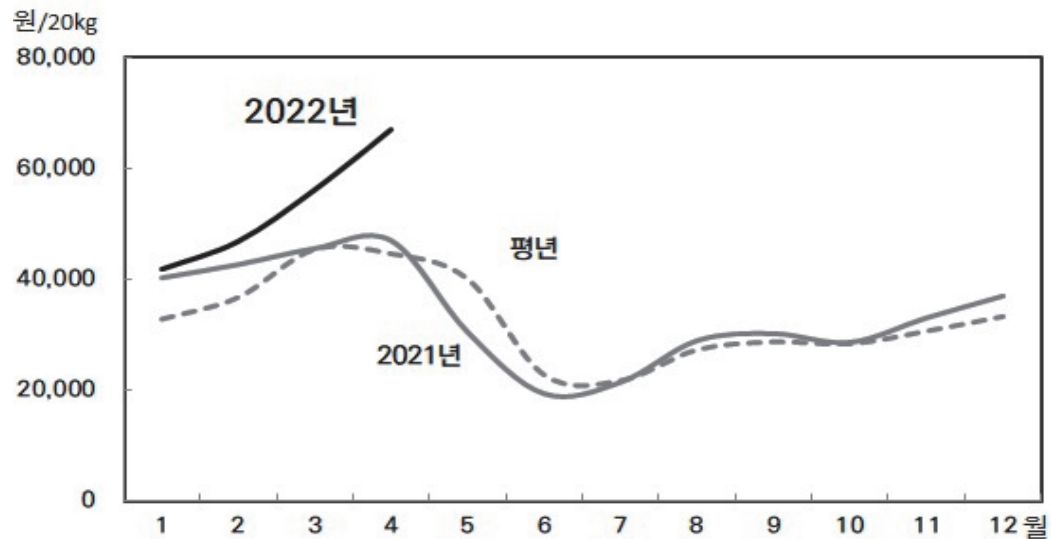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7~2021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2년 1분기 동향
 - 1분기 국산 콩 가격은 5,846원/(백태 상품 kg)으로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6.7% 하락
 - 이는 작황호조로 시장공급량이 전년보다 늘어났기 때문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국산 콩 가격은 5,829원/(백태 상품 kg)으로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 8.6% 하락
 - 2분기 가격은 외식 소비 증가 및 산지유통업체 출하 조절 등으로 전 분기 대비 강보합세 전망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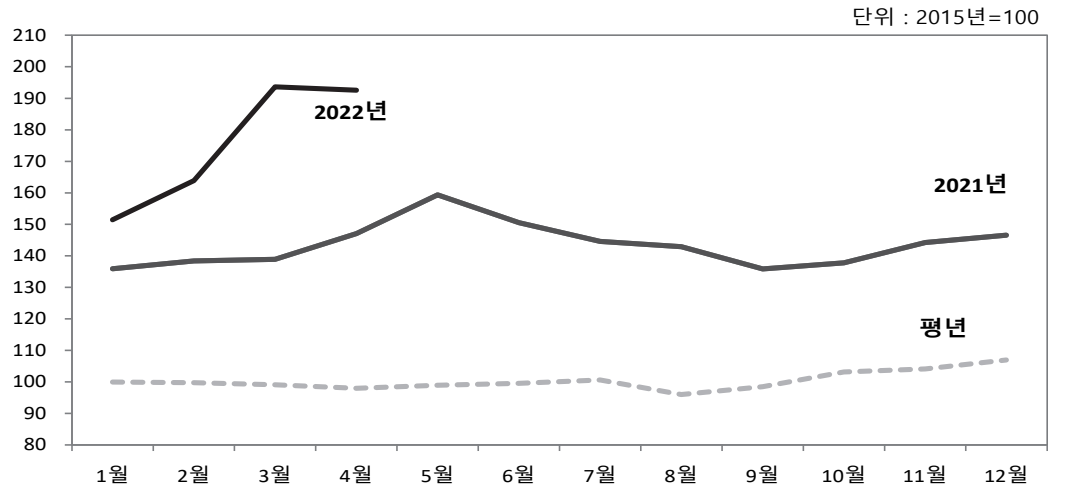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7~2021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1분기 동향
 - 1분기 감자 평균 도매가격은 48,409원/(수미 상품 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평년 대비 14.9% 상승
 - 이는 저장감자는 전년보다 적고, 상대적으로 비싼 시설감자 출하비중은 늘었기 때문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감자(수미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저장 감자 출하 저조 등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상승
 - 2분기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은 노지 봄감자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전망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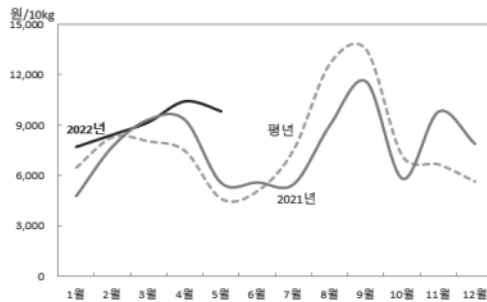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가격은 2017~2021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22년 1/4분기 동향
 - 2022년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전 분기 대비 18.8% 상승한 169.8임.
 - 흑해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남미 주산지의 고온건조한 기상으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원유 가격 강세 등으로 상승함.
- 2022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 차질 지속, 식물성 유지류 등 관련 상품 가격 상승 및 주요 곡물 주산지 기상 악화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 등으로 2022년 2/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2.9% 상승한 174.7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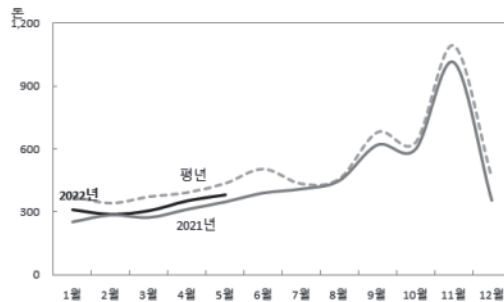
2. 엽근채소²⁾

2.1.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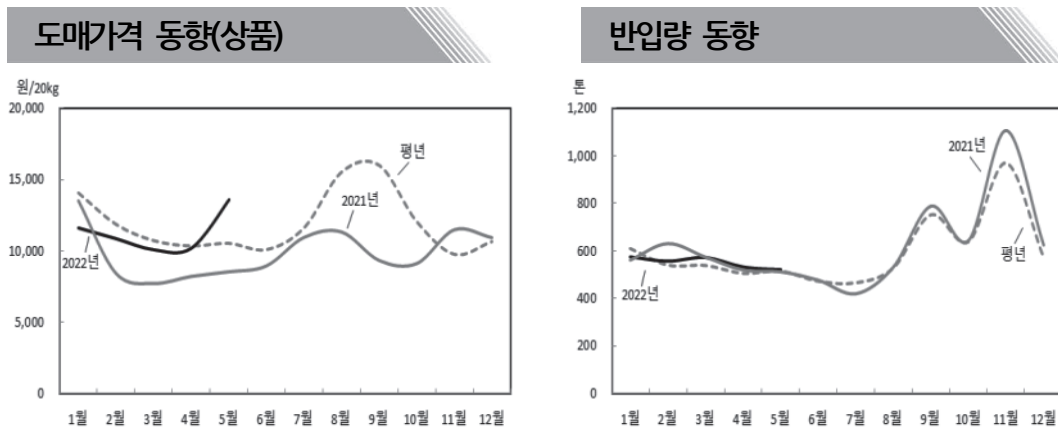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1분기 동향
 - 1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 8,450원/1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9%, 9.0% 상승)
 - 겨울배추 재배면적 감소 및 저장 출하량 감소로 월별 가격 상승
 - * 2021년산 겨울배추 저장량(3~5월 출하) 전년 대비 10.9% 증가, 평년 대비 2.5% 감소
 - * 2022년 가격: (1월) 7,720원/10kg, (2월) 8,440원, (3월) 9,190원
 - * 1분기 가격: (2022년) 8,450원/10kg, (2021년) 7,290원, (평년) 7,750원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 봄배추 생산량 29만 2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1%, 3.6% 감소)
 - * 재배면적 3,247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7%, 1.8% 감소)
 - * 단수 8,984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6%, 1.9% 감소)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봉희(hanbh@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남호진(namho1992@krei.re.kr), 박수은(pse5484@krei.re.kr), 김신준(rlatlswns1@krei.re.kr), 백호승(white7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 전년 출하기 가격 하락, 연작피해로 인한 작목 전환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
 - 본격 출하시기 시설봄배추 5월 상순, 노지는 5월 중·하순
 - 2분기 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5%, 4.6% 감소
- * 저장 겨울배추 및 봄배추 출하량 감소
 - 2분기 배추 도매가격 전년(6,828원/10kg) 및 평년(5,509)원 대비 상승
- 2022년 여름(고랭지)배추 재배면적 전망
 - 2022년 여름(고랭지)배추 재배면적 5,030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4%, 5.6% 감소)
- * 전년도 출하기 가격 하락, 연작피해에 따른 작목 전환으로 재배(의향)면적 감소

2.2. 무



주: 평년 가격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1분기 동향
 - 1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 10,830원/20kg (전년 대비 9.4% 상승, 평년 대비 11.1% 하락)
 - 생육 지연된 겨울무 출하량 증가로 월별 가격 하락
 - * 2022년 가격: (1월) 11,600원/20kg, (2월) 10,840원, (3월) 10,060원

* 1분기 가격: (2022년) 10,830원/20kg, (2021년) 9,900원, (평년) 12,190원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2021년산 겨울무 저장량(4~6월 출하) 전년 대비 21% 감소, 평년과 비슷
- 2022년 봄무 생산량 10만 3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3%, 15.8% 감소)

* 재배면적 905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1%, 13.6% 감소)

* 단수 11,341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 2.5% 감소)

* 전년도 출하기(5~7월) 가격 하락 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 4월 가뭄으로 작황 다소 부진

- 본격 출하시기 시설봄무 5월 중순, 노지는 6월 상순
- 2분기 무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4%, 6.0% 감소
- 2분기 무 도매가격 전년(8,580원/20kg) 및 평년(10,290원)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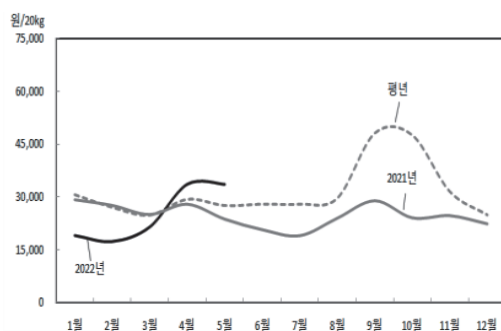
• 2022년 여름(고랭지)무 재배의향면적 전망

- 2020년 여름(고랭지)무 재배의향면적 2,610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7%, 4.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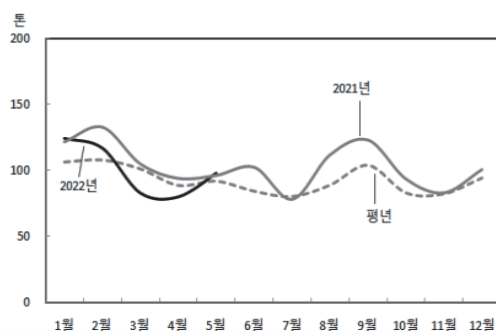
* 전년도 출하기(8~10월) 가격 하락 영향으로 재배의향면적 감소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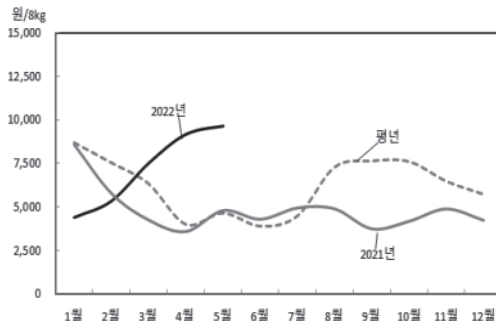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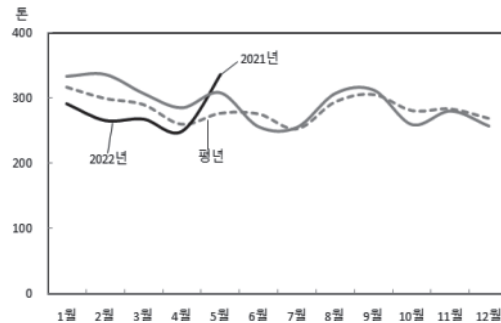
- 2022년 1분기 동향
 - 1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 19,29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9.3%, 29.4% 하락)
 - 2021년산 겨울당근 출하량 증가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하락
 - * 2022년 가격: (1월) 19,050원/20kg, (2월) 17,340원, (3월) 21,470원
 - * 1분기 가격: (2022년) 19,290원/20kg, (2021년) 27,270원, (평년) 27,510원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 봄당근 생산량 2만 8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1%, 3.0% 감소)
 - * 재배면적 967ha (전년 대비 3.5% 감소, 평년 대비 6.4% 증가)
 - * 단수 2,902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9%, 8.8% 감소)
 - * 2월 저온, 3~4월 고온 및 가뭄 등으로 봄당근 작황 부진
 - 2분기 당근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9%, 6.6% 감소
 - 2분기 당근 도매가격 전년(24,100원/20kg) 및 평년(28,280원) 대비 상승
- 2022년 여름(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 전망
 - 여름(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 401ha (전년 대비 2.1% 감소, 평년 대비 45.7% 증가)
 - * 전년 출하기(9~10월) 가격 하락으로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감소
 - * 타 품목(무, 감자 등) 재배의향 적어 감소폭 크지 않을 전망

2.4.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7~2021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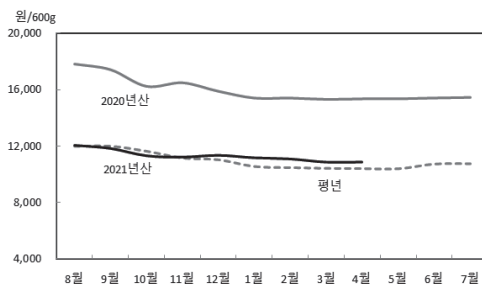
- 2022년 1분기 동향
 - 1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 5,730원/8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6%, 23.8% 하락)
 - 만생종 양배추 재배면적 감소, 중·만생종 양배추 생육기 저온으로 작황 부진하여 월별 가격 상승
 - * 2022년 가격: (1월) 4,370원/8kg, (2월) 5,320원, (3월) 7,500원
 - * 1분기 가격: (2022년) 5,730원/8kg, (2020년) 6,200원, (평년) 7,510원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2021년산 겨울양배추 저장량(4~5월 출하)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0%, 9.6% 감소
 - 2022년 봄양배추 생산량 5만 9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9%, 18.7% 감소)
 - * 재배면적 1,376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8%, 12.0% 감소)
 - * 단수 4,287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3%, 7.6% 감소)
 - * 전년 시설봄양배추 출하기 가격 낮아 재배면적 감소, 2월 저온과 4월 가뭄으로 작황 부진

- 본격 출하시기 시설봄양배추 5월 중순, 노지는 6월 상순
- 2분기 양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9%, 18.4% 감소
- 2분기 양배추 도매가격 전년(4,230원/8kg) 및 평년(4,160원) 대비 상승
- 2021년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 전망
 - 2021년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 1,830ha (전년 수준, 평년 대비 8.5% 증가)
 - * 전년 작황이 부진했던 영남지역 재배면적 감소, 강원은 배추 등에서 작목 전환되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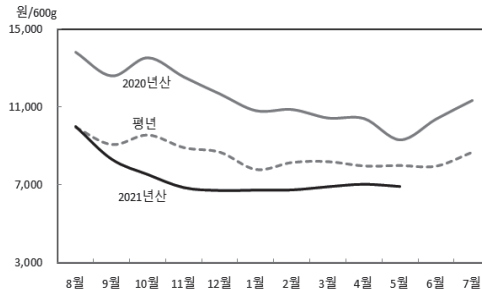
3. 양념채소³⁾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6년 8월~2021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22년 1분기 동향

- 1분기 건고추 도매 및 산지 가격(상품 화건 600g 기준) 2021년산 생산량 많아 전년 대비 각각 28%, 37% 하락, 낮은 가격 지속

* 2021년산 도매가격(원/600g): (21년 4분기) 11,279 → (22년 1분기) 11,032
산지가격(원/600g): (21년 4분기) 7,018 → (22년 1분기) 6,774

* 1분기 도매가격(원/600g): (금년) 11,032 (전년) 15,377 (평년) 10,463
산지가격(원/600g): (금년) 6,774 (전년) 10,700 (평년) 8,060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5월 건고추 도매가격(상품 화건 600g 기준) 1분기와 비슷한 10,860원, 산지가격 6,910원
- 2분기 건고추 가격 전년 대비 낮은 수준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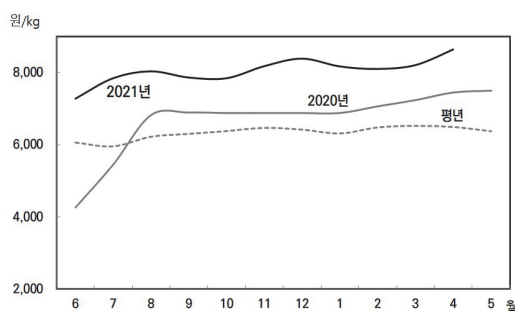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전문위원(rhy81@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홍승표(cfc8214@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김치운(kcu522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22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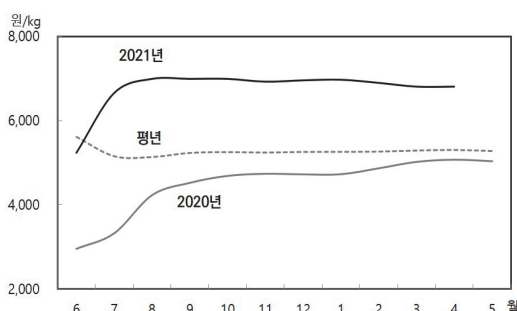
- 2022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은 2021년산 가격 하락 및 인건비 상승 등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 3% 감소한 2만 9,782ha 전망

3.2.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6년 6월~2021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2년 1/4분기 동향

- 간마늘 1/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21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6%, 평년 대비 27% 상승

* 1/4분기 평균 도매가격: (금년) 8,159원/kg, (전년) 7,064원, (평년) 6,443원

- 2022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간마늘 가격은 2021년산 재고량 감소로 전년 대비 높음

* 4월 도매가격: (금년) 8,646원/kg, (전년) 7,453원, (평년) 6,496원

- 2022년 2/4분기 마늘 도매가격은 2022년산 햇마늘 출하가 시작되면서 1/4분기보다 하락 전망

- 2022년 4월 말 기준,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약 1만 3천 톤
 -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9.2% 적은 9만 6천 톤 내외
 - 저장·가공업체 표본조사 결과, 4월 말 기준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저장업체 입고량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1	96,419	80,434	12,965
2020	106,175	88,796	14,199
평년	107,000	92,000	13,230
전년 대비	-9.2	-9.4	-8.7
평년 대비	-9.9	-12.6	-2.0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1년산 18.9%, 2020년산 18.3%, 평년 11.8%)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 및 TRQ는 미포함.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20일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치

- 2022년산 마늘 생산 전망
 - 2022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농업관측센터 재배면적 실측 조사 결과, 2021년산 대비 0.7% 증가한 23,686ha
 - 2021년산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전년 대비 1.9~4.6% 감소한 1,270~1,305kg/10a로 전망
 - * 농업관측센터 생육 6차 실측(구중)결과를 고려한 단수모형 반영시 단수는 1,270kg/10a
 -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단수는 1,305kg/10a
 - 2022년산 마늘 생산량 평년 대비 감소 전망
 - * 2022년산 마늘 생산량은 평년 대비 적은 30만 1천~30만 9천톤 추정

2022년산 마늘 추정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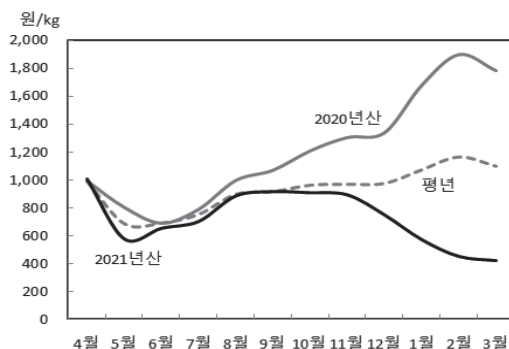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2	23,686	1,254~1,305	297,017~309,110
2021	23,528	1,330	312,996
평년	25,975	1,285	333,668
전년 대비	0.7	-5.7~-1.9	-5.1~-1.2
평년 대비	-8.8	-2.4~1.6	-11.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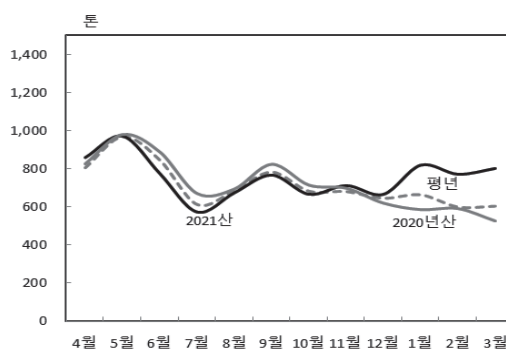
주 1) 2022년산 재배면적, 2021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평년은 통계청 조사 결과
2) 2022년산 단수는 생육 실측치와 4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6년 4월~2021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국내산 양파 저장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낮은 상품 kg당 479원
 - * 1/4분기 월별 일평균 출하량: (1월) 819톤, (2월) 771톤, (3월) 802톤

- 2022년산 양파 동향 및 전망
 - 수급대책을 반영한 2022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7%, 13% 감소
 - 4월 말까지의 생육상황을 감안할 경우 2022년산 양파 생산량은 119~121만 톤으로 평년보다 14% 내외 적을 전망

2022년산 양파 추정 생산량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2	17,327	6,890~6,982	1,194~1,210
2021	17,521	7,390	1,370
평년	19,949	7,068	1,410
전년 대비	3.4	-6.8~-5.5	-12.8~-11.7
평년 대비	-9.2	-2.5~-1.2	-15.3~-14.2

주1) 2022년산, 2021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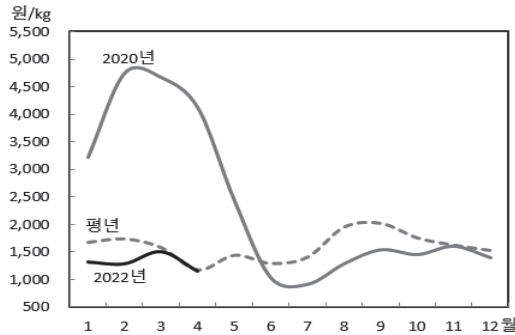
주2) 2022년산은 산지떼기면적을 고려한 수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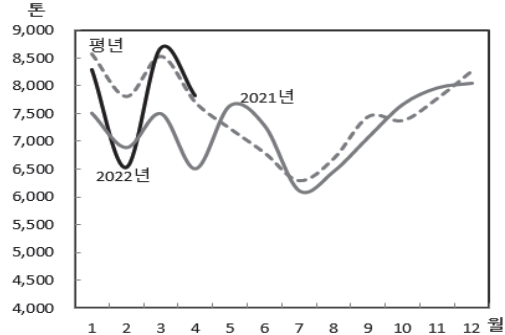
- 2022년 2/4분기 가격 동향 및 전망
 - 4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낮으나 전월보다 높은 611원
 - 정부 수급안정 대책 시행으로 공급량 전월 대비 감소하여 가격 상승
 - 5~6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중만생종양파 생산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보다 높을전망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1/4분기 동향
 - 대파 1/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369원/kg(중품 1,175원/kg)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7.5%, 17.4% 하락
 - * (금년) 1,369원/kg, (전년) 4210원, (평년) 1,658원
 - * (1월) 1,316원/kg → (2월) 1,284원 → (3월) 1,508원
 - 1/4분기 가격은 겨울대파 생육기 기상호조로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가격이 크게 하락
- 2022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4,117원/kg)보다 낮은 1,147원/kg
 - 2/4분기는 봄대파가 주로 출하되는 시기로 경기, 전북, 충청, 영남 등에서 주 출하될 예정
 - 2/4분기 가격은 봄대파 재배면적 감소로 전 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

3~6월 정식(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전북	전남		
-4.2	10.7	-9.6	-4.7	-0.8	-8.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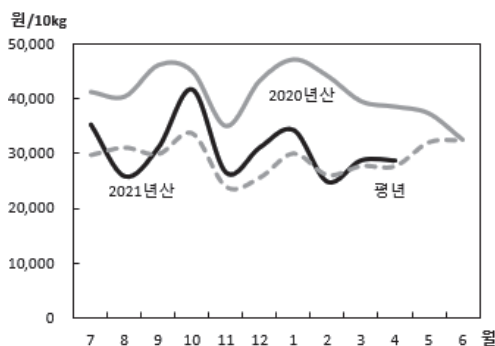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고랭지대파 주 출하지인 강원은 대체작목 부재와 비주산지(양구지역)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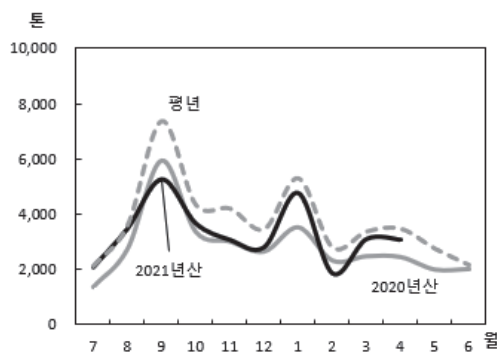
4. 과일4)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6~20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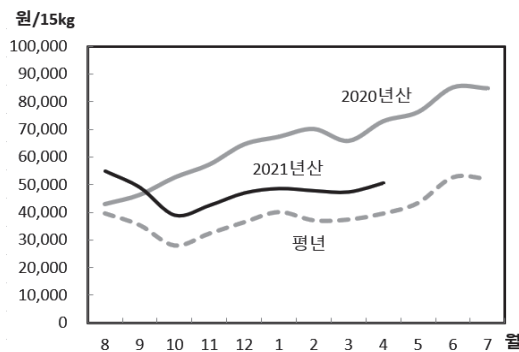
- 2022년 1분기 동향
 - 1분기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2021년산 후지 저장량 증가로 반입량이 늘어 전년 대비 33% 낮은 2만 9,200원/10kg이었음.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후지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26% 낮은 2만 8,600원이었음.
 - 5월과 6월 이후 후지 도매가격도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됨. 최근 낮은 사과 가격 영향으로 5월에 출하를 종료하려는 농가 의향이 높음.
- 2022년 재배면적 추정
 - 금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유목면적은 국내

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이혜인(hyen@krei.re.kr), 윤성욱(yunsw@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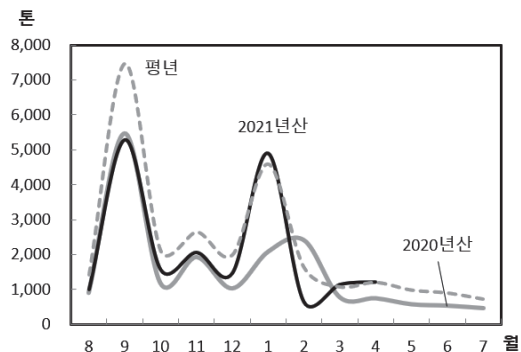
육성품종 및 신품종 갱신이 활발하여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으나, 성목면적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매몰, 타 품목 전환(샤인머스켓) 등으로 2% 감소하였음.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6~20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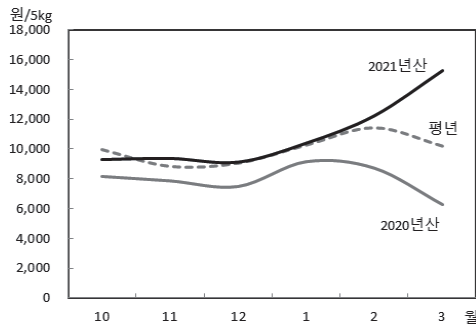
- 2022년 1분기 동향
 - 1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증가(전년 대비 27%)로 전년 대비 29% 하락한 47,900원/15kg이었음.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2021년산 저장량 증가로 반입량이 늘어 전년 대비 31% 하락한 50,600원/15kg이었음.
 - 5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 대비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도 가격 상승으로 배 출하를 늦춘 농가가 많기 때문임. 또한, 무름과와 과피얼룩 등 생리장해 발생이 늘고 경도가 낮아 저장배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됨.

• 2022년 재배면적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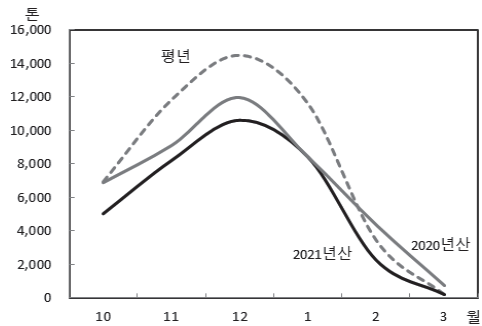
- 금년 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매몰, 도시개발 등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9,443ha로 추정됨. 다만, 유목면적은 국내 육성품종(신화·슈퍼골드 등) 갱신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음.
- 강원·경기와 충청지역은 2021년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폐원이 늘어 전년 대비 각각 5%, 1% 감소함. 호남과 영남지역은 타 품목 전환(샤인머스켓 등)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1%, 3% 감소하였음.
- 신고와 원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3% 감소하나, 신화·화산·추황·황금·기타 재배면적은 신규 식재 지원사업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음.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감귤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6~20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노지온주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 2022년 1분기 동향

- 1분기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57% 상승한 12,600원/5kg이었음.

- 2022년 2분기 전망
 - 5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전년 가을철 장마와 고온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가온개시일도 지연되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6월 이후에는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22년 재배면적 추정
 - 2022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1만 9,801ha로 추정됨. 노지온주는 수익성 저하, 시설재배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하고, 월동온주(비가림)는 하우스온주·만감류로 전환이 늘어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음. 반면, 하우스온주는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음.
 - 만감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4,105ha로 추정됨. 품종별로 한라봉 재배면적은 수익성 저하로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으나, 천혜향과 레드향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전년 대비 각각 2% 증가하였음.

4.4. 포도

- 2022년 재배면적 추정
 - 금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샤인머스켓 유목의 성목화로 유목면적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성목면적은 5% 증가하였음.
 - 과거 주력품종이었던 캠벨얼리 및 거봉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10%, 13% 감소하나, 샤인머스켓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여 포도 품종 중 가장 재배면적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홍주 씨들리스, 루비로망 등 기타 품종의 재배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4.5. 단감

- 2022년 재배면적 추정
 - 2022년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8,534ha로 추정됨. 유목면적은 태추, 원추 등 품종 갱신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나, 성목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 인력 부족, 도시 개발 등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음.
 - 주 품종인 부유 재배면적은 경사지 과원 폐원과 신품종 갱신 등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하고, 차랑·서촌조생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1%, 7% 감소하였음.
 - 태추와 기타 품종은 전년 대비 각각 9%, 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중생종 태추는 부유보다 출하시기가 빠르고 당도가 좋아 재배의향이 증가하였고, 기타 품종은 주산지인 경남지역에서 국내 육성품종(원추·원미 등) 갱신과 신규 농가 진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4.6. 복숭아

- 2022년 재배면적 추정
 - 금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대 비슷한 1만 9,388ha로 추정됨. 유목면적은 수익성이 높은 천도계 신품종(신비·엘로드림 등)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유모계 조생종·만생종 식재가 늘어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음. 성목면적은 폐원(농가 고령화, 노목화), 자연재해(장마, 동해), 작목 전환(샤인머스켓 등), 품종 갱신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음.
 - 유모계 재배면적은 연속된 이상기후로 동·냉해와 세균구멍병 등 병해충 발생이 많아 노목원을 중심으로 폐원이 증가하였고, 샤인머스켓 등 타 작목 전환이 많아 전년 대비 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천도계 재배면적은 품종 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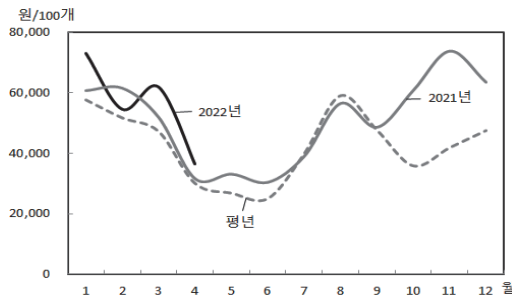
이 늘어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음.

- 지역별 재배면적은 폐원 및 타 작목 전환이 늘어 전국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호남지역은 지자체 묘목 지원사업 및 신품종(주월황도·대적도·홍비금·코키·조단장 등) 갱신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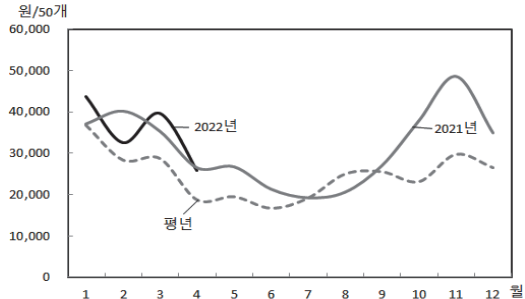
5. 과채5)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1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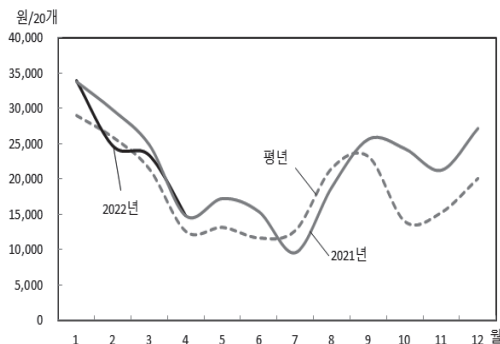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월 73,100원/100개, 2월 54,600원, 3월에는 62,000원이었음. 1분기 평균가격은 63,300원/100개로 전년 동기(58,100원) 대비 9% 상승하였음.
- 1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한파와 기상 여건에 따른 생리장해로 주산지의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월 43,800원/50개, 2월 32,600원, 3월은 39,800원이었음. 1분기 평균가격은 38,700원/50개로 전년 동기(37,500원)보다 3% 상승하였음.
- 1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에서 기상 여건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였음.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김명은(mekim@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김환희(whee0201@krei.re.kr), 문지혜(mjh91@krei.re.kr), 강형준(94ju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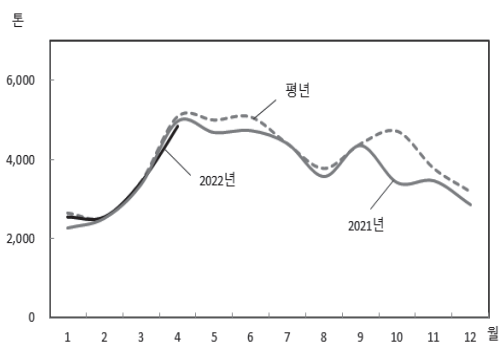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15% 높은 36,500원/100개이었음.
 - 5~6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에서 기상 여건(일조량 부족, 기온 하락 등)으로 4월에 지연되었던 물량이 출하되고, 작황도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2% 낮은 25,900원/50개이었음.
 - 5~6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전남지역과 새로 출하되는 충청지역의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많을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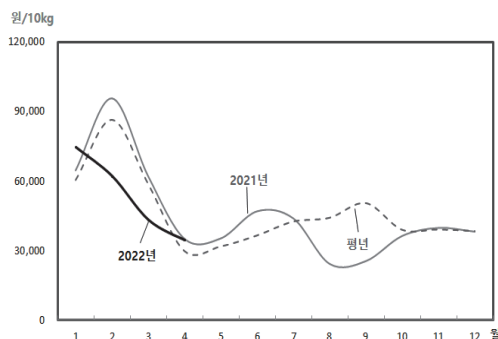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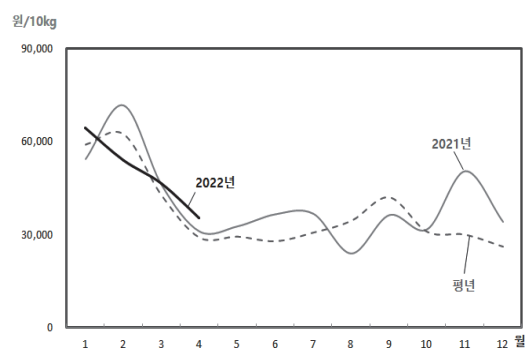
- 2022년 1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월 33,900원/20개, 2월 24,700원, 3월 23,400원이었음. 1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29,400원) 동기 대비 7% 하락한 27,300원/20개이었음.
 - 1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영남지역에서 재배면적 증가와 병·바이러스 발생 감소로 작황이 호하여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일조량 감소와 큰 일교차로 생육이 지연 되면서 반입량이 소폭 감소하여 전년 동월(14,800원) 대비 1% 상승한 14,900원/20개이었음.
 - 5~6월 애호박 출하량은 병해충, 바이러스 피해가 적고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3.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오이맛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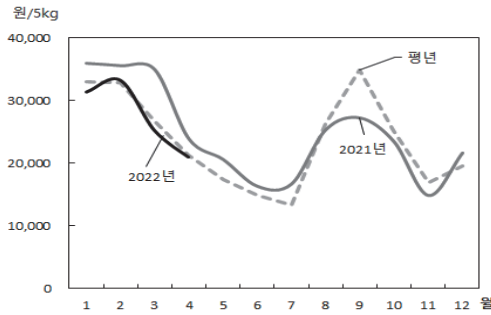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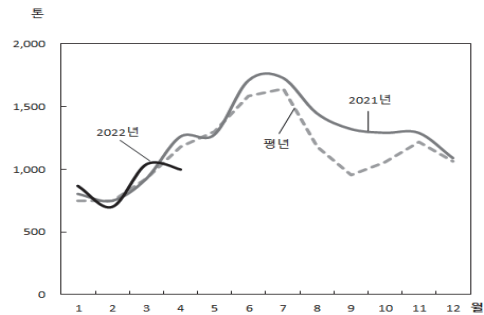
- 2022년 1분기 동향
 -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월 74,400원/10kg, 2월 62,000원, 3월 43,200원이었음. 1분기 평균가격은 전년(74,000원)보다 19% 낮은 59,800원/10kg이었음.
 - 1분기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기상 여건이 좋아(일조량 증가 등) 작황이 부진하였던 전년 대비 바이러스·병해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임.
 - 오이맛고추 도매가격은 1월 64,500원/10kg, 2월 54,000원, 3월 46,500원이었음. 1분기 평균가격은 전년(57,400원)보다 4% 낮은 55,000원/10kg이었음.
 -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기상 여건 양호로 출하량이 증가했기 때문임. 한편, 경남지역 재배면적 감소와 대체재(녹광, 룡그린 등) 가격 강세로 청양계꽃고추에 비해 하락폭이 적었음.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보다 2% 낮은 34,500원/10kg이었음. 4월 오이맛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보다 14% 높은 35,300원/10kg이었음.
 - 청양계꽃고추는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오이맛고추는 대체재가격 강세와 대형마트 할인행사로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남.
 - 5~6월 청양계꽃고추 출하량은 경남지역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바이러스 및 병해 발생이 크게 줄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오이맛고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감소하나, 기상 여건 호조로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빨강파프리카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 동향(상품)



빨강파프리카 반입량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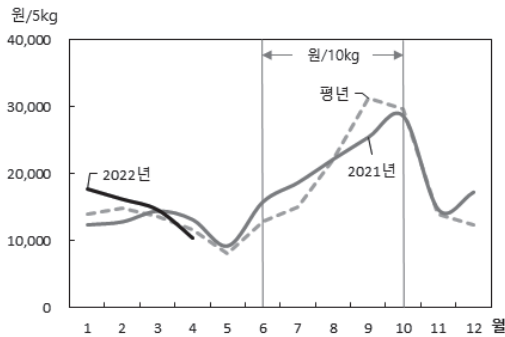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1분기 동향
 - 빨강파프리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월 31,400원/5kg, 2월 33,200원, 3월 25,300원이었음. 1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35,600원) 대비 16% 낮은 30,000원/5kg이었음.
 - 1분기 빨강파프리카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하였음. 영·호남지역의 작황이 전년 대비 양호(병·해충·바이러스 피해 감소)하여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 대비 12% 낮은 21,400원/5kg이었음.
 - 이는 소비대체재인 홍피망 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빨강파프리카 가격이 동반 하락하였기 때문임.
 - 5~6월 빨강파프리카 출하량은 신규농 진입과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 및 노랑파프리카에서 빨강파프리카로의 품종 전환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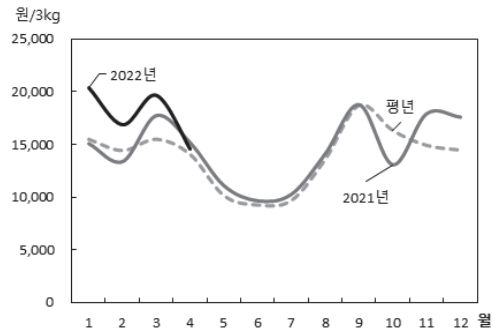
5.5.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2022년 1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월 17,700원/5kg, 2월 16,200원, 3월 14,600원이었음. 1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13,100원)보다 23% 높은 16,200원/5kg이었음.
- 1분기 일반토마토 반입량은 겨울철 작황이 부진한 농가의 12~1월 재정식으로 출하면적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하였음.
-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월 20,400원/3kg, 2월 16,900원, 3월 19,700원이었음. 1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15,400원) 대비 23% 상승한 19,000원/3kg이었음.
- 1분기 대추형방울토마토 반입량은 재정식에 따른 출하면적 감소와 기상 여건 악화(일조량 부족, 저온 지속 등)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였음.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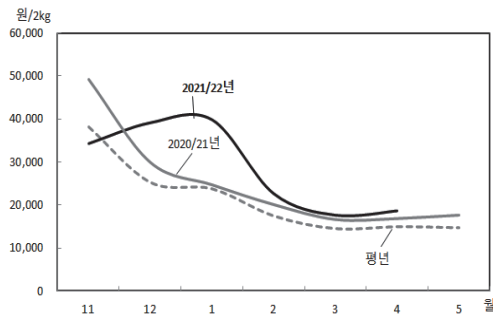
- 4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13,100원) 대비 20% 하락한 10,500원/5kg이었음.
- 5~6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기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 등으로 생육이 원활

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대추형방울토마토 반입량은 하순에 생육이 지연되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도매가격은 전년(15,100원) 대비 4% 하락한 14,600원/3kg이었음. 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게 형성된 이유는 중순까지 출하가 원활하여 중순 가격 하락폭(-15%)이 컸기 때문임.
- 5~6월 대추형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양호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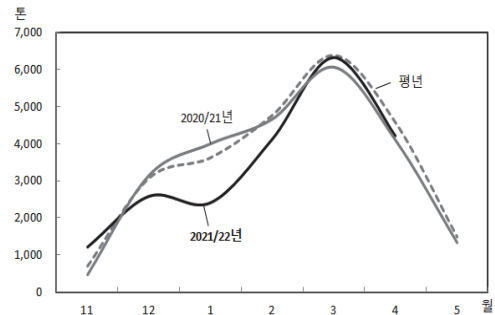
5.6.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과거 5개년의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딸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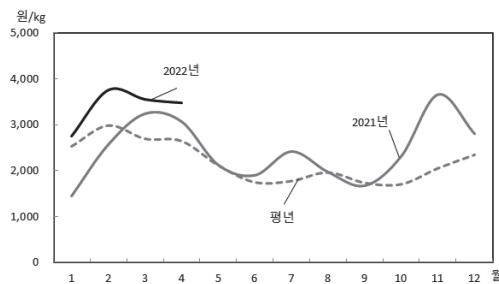
• 2022년 1분기 동향

- 딸기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월 39,800원/2kg, 2월 22,700원, 3월 17,700원이었음. 1분기 평균가격은 26,700원/2kg으로 전년 동기(20,600원) 대비 31% 높았음.
- 딸기 1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였음. 이는 생육초기(10월) 고온 피해로 병해(시들음병, 곰팡이병 등)가 증가하는 등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임.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딸기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6,800원) 대비 12% 높은 18,700원/2kg이었음.
 - 5~6월 딸기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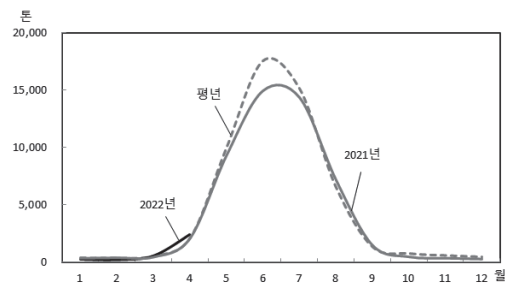
5.7.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수박 반입량 동향



- 2022년 1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월 2,750원/kg, 2월 3,750원, 3월 3,550원이었음. 1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2,420원) 동기 대비 39% 상승한 3,350원이었음.
 - 수박 1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하였음. 이는 주산지에서 재배 면적이 줄었으며, 병충해 발생과 기상 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였기 때문임.
- 2022년 2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2,110원) 대비 16% 상승한 2,460원/kg이었음. 당도 등 품질이 양호하고 소비 대체재(참외, 오렌지 등)가

격이 높아 반입량 증가에도 가격이 상승하였음.

- 5~6월 수박 출하량은 기상 여건 악화로 수정이 불량하며, 과 비대기에 큰 일교차로 생육이 지연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6)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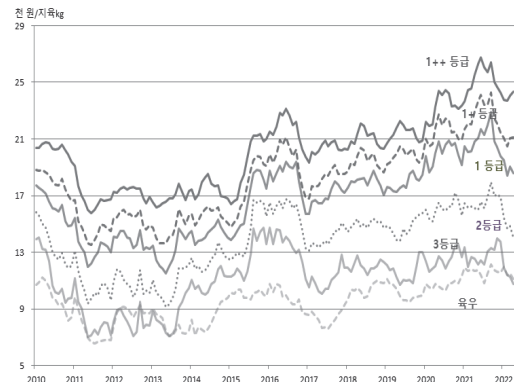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구분	20년	21년					22년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p	
사육 농장수	93	93	94	94	94	93	
총 마릿수	3,395	3,373	3,568	3,623	3,589	3,510	
가임 암소	1,555	1,532	1,564	1,634	1,640	1,618	

주: 2022년 3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1/4분기 동향
 -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337만 3천 마리) 대비 4.1% 증가한 351만 마리
 - * 3월 한우 사육 마릿수 334만 2천 마리, 육우 16만 8천 마리
 - * 가임암소 마릿수 161만 8천 마리 (전년 동월 153만 2천 마리보다 5.6% 증가)
 - 1분기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전분기 20,988원/지육kg보다 5.9% 하락한 19,754원 (전년 동기 20,414원보다 3.2% 하락, 평년 동기 18,051원보다 9.4% 상승)
- 2/4분기 전망
 - 6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가격 강세로 인한 입식의향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강지석 전문연구원(jskang@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전문연구원, 임호빈(hyobin@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김충현(goldbl@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김경진(kkj047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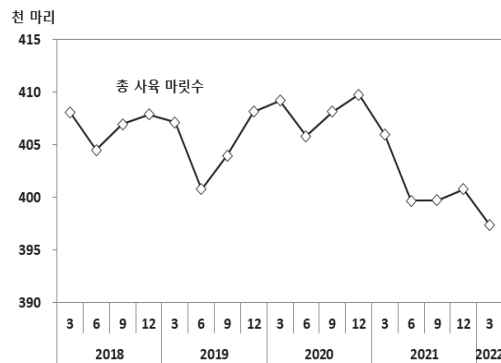
- (339만 9천 마리)보다 5.0% 증가한 356만 8천 마리 전망
- 2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도축 가능 개체수 증가로 도축 마릿수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 대비 하락한 19,000~20,000원 전망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21년(A)	2022년	2022년(B)	B/A
사육 마릿수	6월 339만 9천 마리	3월 334만 2천 마리	6월 356만 8천 마리	5.0%
평균 도매가격 (지육kg)	2분기 21,301원	1분기 19,754원	2분기 19,000~20,000원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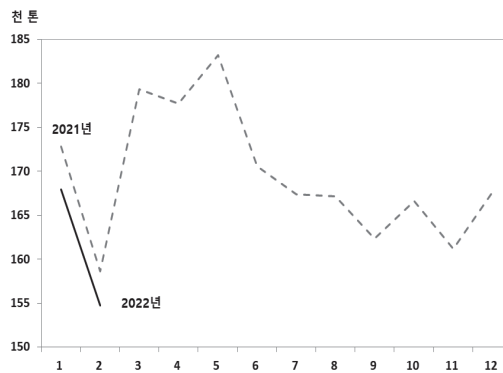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자료: 낙농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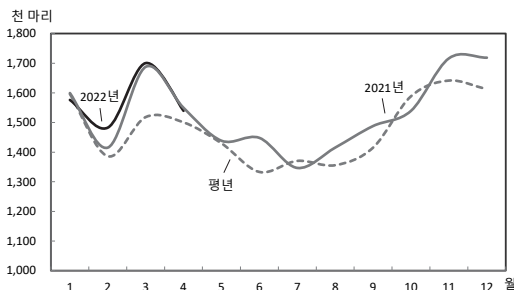
- 1/4분기 동향
 - 3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39만 7천 마리
 - 1~2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32만 6천 톤

- 2/4분기 전망

- 6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2.3% 내외 감소한 38만 9천~39만 1천 마리 전망
-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3.7% 내외 감소한 50만 9천~51만 5천 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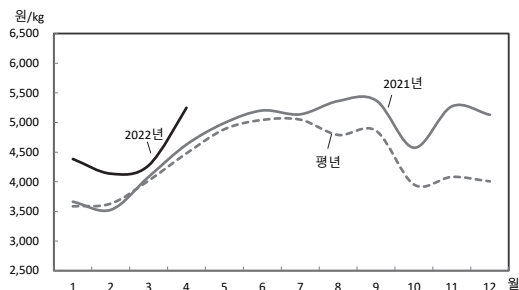
6.3. 돼지

도축 마릿수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매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1/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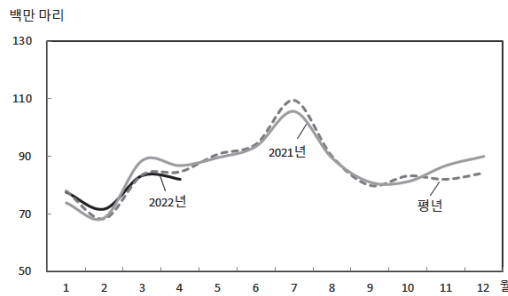
- 3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0.8% 증가한 97만 마리,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는 전년도 모든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1.9% 증가한 1,176만 마리(이력제)
- 1분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기(470만 마리)보다 1.2% 증가한 476만 마리
- 1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재고포함 공급량 감소로 전년 동기(3,756원)대비 13.7% 상승한 4,270원/kg

- 2/4분기 전망

- 2분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나 작업일 감소로 전년과 비슷한 443만 마리
- 2분기 도매가격은 러·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수입오피 가격 상승,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국내 외식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4월 5,251원, 5~6월 6,000~6,200원)
- * 돼지고기 수출국 현지 수급 상황 변화에 따른 국내 수입량 변화로 도매가격은 전망치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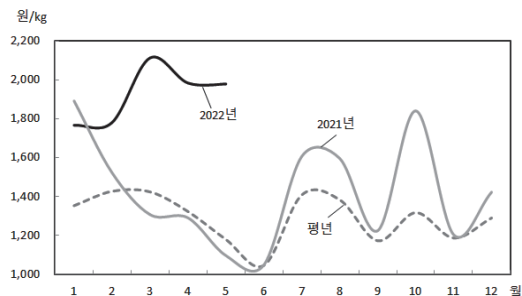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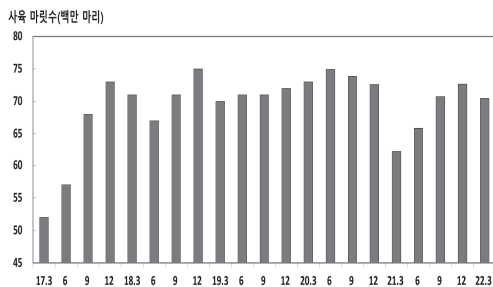
• 1/4분기 동향

- 1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작년 1~4월 종계 병아리 입식 증가와 작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매몰 처분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한 499만 마리
- 1분기 총 도계 마릿수는 토종닭과 삼계, 산란노계의 도축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2억 3천 3백만 마리
- 그러나 육계 도축 마릿수는 1~2월 육용 종계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병아리 생산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

- 1분기 평균 육계 산지 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상승한 1,887원/kg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분기 병아리 생산량은 육용 종계 생산성 하락 영향이 지속되며 전년보다 감소
 - 병아리 생산량은 육용 종계 생산성 회복이 예상되는 5월 중순 이후 전년 수준, 6월에는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분기 도계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감소로 전년보다 4.1% 적은 2억 5천 9백만 마리
 - 4월 육계 산지 가격은 도계가 줄어 전년 대비 53.7% 상승한 1,984원/kg, 5~6월 육계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1,800~2,0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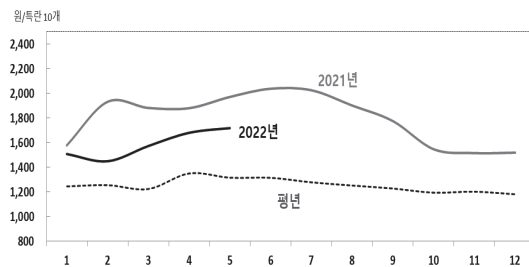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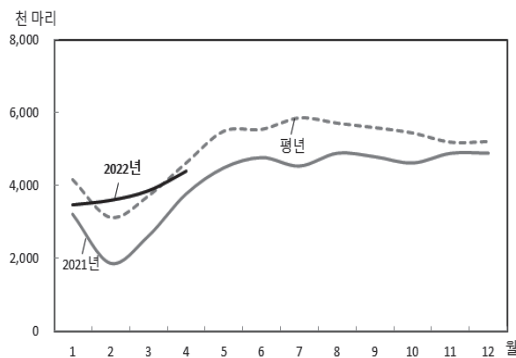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2018년 이전), 축산물품질평가원(2019년 이후)

- 1/4분기 동향
 - 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4%, 3.8% 증가한 7,043만 마리,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으나, 평년 대비 0.8% 감소한 5,015만 마리

- 3개월 미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1.8%, 23.1% 증가,
3~6개월령 미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32.5%, 13.1% 증가
- 1분기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12.5%, 25.3% 증가한
1,292만 마리,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7.0%,
10.9% 증가한 908만 마리
- 1분기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5.9% 하락한
1,512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
- 2/4분기 전망
 - 5~6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작년 하반기 실용계 입식 늘어 전
년 대비 증가
 - 4월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10.5% 하락한 1,682원
 - 5~6월 계란 산지가격은 사육 마릿수 증가로 계란 생산량이 늘어 전년대비
하락한 1,600~1,700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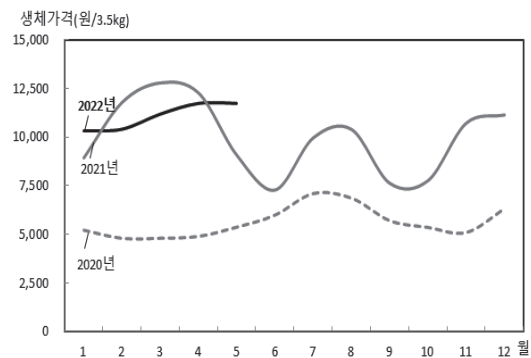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을 공
시하고 있으며 평년 자료는 없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1/4분기 동향
 - 3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45.6% 증가한 570만 6천 마리, 육용오리와 종오리는 전년 대비 각각 51.4%, 6.8% 증가한 516만 6천 마리, 54만 마리
 - 1분기 도압 마릿수는 HPAI 발생에 따른 사육 마릿수 감소로 평년 대비 0.7% 감소하였으나, 2021년 동기 대비 HPAI 피해가 크지 않아 전년 대비 42.5% 증가한 1,095만 8천 마리, 1분기 오리 산지 가격(생체 3.5kg)은 도압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4.8% 하락한 10,645원
- 2/4분기 전망
 - 4~6월 국내 오리 사육 마릿수는 HPAI 발생으로 종오리 사육 및 육용오리 피해가 컸던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5~6월 오리 생체가격은 오리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나, 냉동 재고 급감으로 전년보다 높은 10,000원 내외로 전망됨.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5	71.2
	101~300㎡ 이하	65	19.7
	300㎡ 초과	30	9.1
직원수	1~3명 이하	259	78.5
	4~5명 이하	38	11.5
	6명 이상	33	10.0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양지아(jigeumaa@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m² 이하인 업소가 71.2%로 가장 많고, 101~300m² 이하 19.7%, 300m² 초과 9.1% 순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78.5%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22년 1/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55(5점 척도)로 전년 동기(2.49)대비 상승하였고, 전 분기(2.21) 대비 또한 증가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21년 1/4분기	2021년 4/4분기	2022년 1/4분기
2.49	2.21	2.55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1/4분기(1~3월) 매출은 전년 동기와 전 분기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 매출 증감률이 5% 내외인 2.55, 2.56으로 나타남.

음식업 매출 동향(5점 척도 기준)

전년 동기 ('21년 1/4분기)	전분기 ('21년 4/4분기)
2.55	2.56

- 2022년 2/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2022년 1/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 92.5로 나타나 전 분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2022년 2/4분기 주요 농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2/4분기)와 전 분기(2022년 1/4)에 비해 각각 0.1%, 0.2%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2. 곡류

- 2022년 1/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5% 감소하였고,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감자 1/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9% 감소하였고, 전 분기 대비 0.1% 감소하였음.

곡류 품목별 1/4분기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0.5	0.0	-3.9	-0.1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2/4분기 감자, 쌀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2/4분기) 대비 5.2%,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0.8	-5.2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3. 채소류

- 2022년 1/4분기 엽근채소류, 양념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3%, 1.9% 증가함.
 - 엽근채소의 월평균 구매량은 배추김치와 무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에 비해 0.3~3.8% 증가함.

- 양념채소의 월평균 구매량은 양파와 건고추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에 비해 0.1~14.0% 증가함.

채소류 품목별 1/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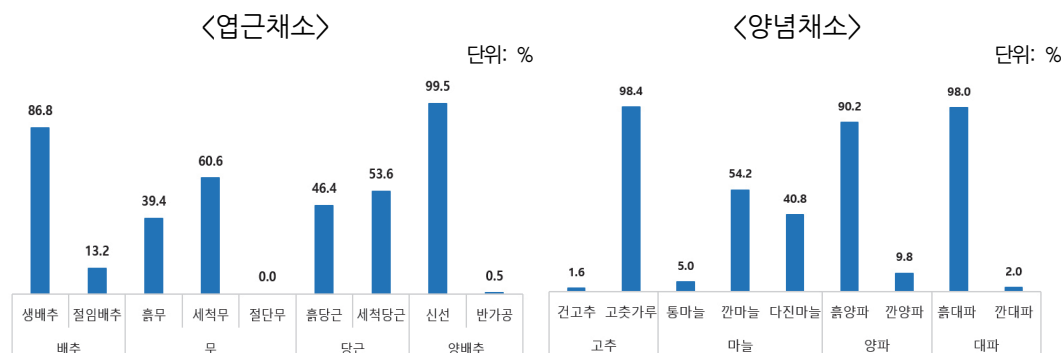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3.8	건고추	-11.6
배추김치	-2.8	고춧가루	0.1
무	-0.4	마늘	0.9
당근	1.2	양파	-0.4
양배추	3.1	대파	14.0
소계	0.3	소계	1.9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 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양배추(99.5%), 고추
(98.4%), 대파(98.0%), 홍양파(90.2%), 생배추(86.8%)이며, 무, 마늘, 당근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친 1차 가공 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소류 품목별 구입 형태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1/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 깐양파, 고춧가루의 중국산 비중이 높음.
 -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72.8%), 깐양파(58.2%), 고춧가루(47.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중국산 배추김치의 구매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파, 무, 배추는 전체 구매의 99.0%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국내산 구매율이 월등히 높음.
 - 통마늘, 당근, 대파, 배추김치, 배추, 무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국내산의 비중이 증가함.
 - 중국산 채소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72.1%)'가 가장 높았음.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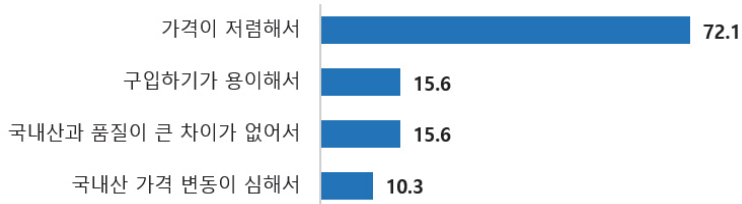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21년 1/4분기		2022년 1/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 채소	무	99.4	0.6	99.6	0.4
	배추	98.8	1.3	99.0	1.0
	배추김치	26.7	73.4	27.2	72.8
	당근	56.4	43.7	64.4	35.6
	양배추	89.0	11.0	88.4	11.6
양념 채소	건고추	79.6	20.5	61.1	38.9
	고춧가루	53.5	46.5	52.2	47.8
	통마늘	72.1	28.0	82.3	17.7
	깐마늘	59.4	40.6	58.1	41.9
	다진마늘	58.8	41.2	56.6	43.4
	훈양파	90.0	10.0	89.3	10.7
	깐양파	42.9	57.1	41.8	58.2
	대파	98.0	2.1	99.8	0.2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채소류 구입한 이유

단위: %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2022년 1/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34.6%이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은 65.4%로 완제품의 구입 비율이 더 높음.
 -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은 19.0%이며, 반대로 현재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5.4%로 나타남.
- 중국산 김치 사용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92.7%로 나타났으며, 감소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은 7.3%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중국산 김치 소비량이 감소한 이유로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72.7%)’,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27.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됨.
 -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으로 ‘깍두기, 파김치 등 타 김치 제공(36.4%)’, ‘단무지 제공(36.4%)’, ‘안 함(27.3%)’의 순으로 나타남.

배추김치 구입 유형별 비율

단위: %

직접 제조	완제품 구입
34.6	65.4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중국산 김치 소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방법

단위: %

깍두기, 파김치 등 타 김치 제공	단무지 제공	안 함
36.4	36.4	27.3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2/4분기 엽근채소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2/4분기)에 비해 3.2% 증가하고, 양념채소는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엽근채소 2/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무와 당근을 제외한 모든 주요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2.8~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양념채소의 2/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건고추, 고춧가루, 양파의 경우 각각 10.1%, 0.6%, 0.6% 감소하며, 대파, 마늘은 13.9%,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채소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2.9	건고추	-10.1
배추김치	8.1	고춧가루	-0.6
무	-0.8	마늘	1.1
당근	-0.3	양파	-0.6
양배추	2.8	대파	13.9
소계	3.2	소계	1.7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4. 과채류

- 2022년 1/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함.
 - 애호박, 풋고추, 오이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3.1%, 2.4%,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1/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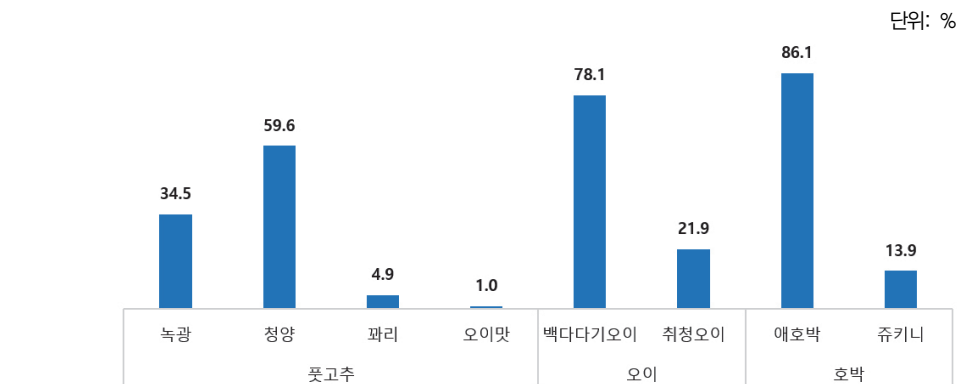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2.4	2.3	3.1	2.5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4.5%), 파리고추(4.9%), 오이맛(1.0%) 순으로 구입함.
 - 오이는 취청오이(21.9%)보다는 백다다기오이(78.1%)를, 호박은 쥬키니(13.9%)보다는 애호박(86.1%)을 주로 구입함.

과채류 품목별 구입 품종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2/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2/4분기)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오이, 애호박, 풋고추의 2/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5%, 1.8%,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0.7	2.5	1.8	1.9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5. 축산류

- 2022년 1/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함.
 - 계란, 쇠고기, 닭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4.9%, 0.6%, 0.5% 증가하였으며, 오리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2.2%, 1.9% 감소하였음.

축산물 품목별 4/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0.6	-1.9	0.5	-2.2	4.9	3.7

주: 소계는 각 품목별 가중치를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1/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6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국내산 구입 비중은 2.1%p 증가하고, 미국산 구입 비중은 0.8%p 감소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66.9%로 전년 동기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그 외 캐나다산과 칠레산은 각각 1.0%p, 0.9%p 증가하고, 미국산과 뉴질랜드산은 1.7%p, 0.3%p 감소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3.8%, 100.0%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21년 1/4분기					2022년 1/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8.3		74.8		16.9	10.4		73.5		16.1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66.8	12.7	5.6	10.3	2.2	66.9	11.0	6.6	11.2	1.9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국내산		미국산	
	85.6		7.1		6.3	1.1	84.0		7.1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100.0		0.0			100.0		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2/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2/4분기)에 비해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계란, 쇠고기, 닭고기의 2/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6.8%, 1.8%, 1.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리고기와 돼지의 경우 2.2%,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축산물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1.8	-0.8	1.1	-2.2	6.8	5.4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6. 기타

- 2022년 1/4분기 식재를 전처리된 형태로 구입하는 이유로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42.3%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20.8%)’,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15.0%)’,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처리 식재의 구입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주방내 조리 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42.3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20.8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	15.0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12.8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	8.9
단가가 저렴해서	0.1
소계	100.0

주: 해당 조사의 대상으로 감자, 무,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1/4분기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 ‘가격등락이 심함’이 32.1%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28.2%)’,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17.6%)’,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1.2%)’ 순으로 나타남.

농산물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

단위: %

항목	비중
가격등락이 심함	39.1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	20.3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	14.2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	14.2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	11.8
없음	0.3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후식 과일의 경우, 응답자의 6.4%만이 후식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되는 후식 과일은 오렌지가 3.6%로 가장 높았음.
- 후식 과일 제공 시, 수입산 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가 53.3%로 가장 높았음.

후식 과일 비율

단위: %

항목	비중	항목	비중
오렌지	3.6	바나나	0.9
사과	3.3	방울토마토	0.9
파인애플	1.8	귤	0.3
배	1.5		

주: ‘제공하지 않음’의 비율은 93.9%이며, 각 항목에 대한 중복응답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과일 선호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수입산이 더 저렴함)	53.3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어서(생산되지 않는 계절이어서)	20.0
국내산보다 맛이 좋아서	13.3
국내산의 맛/품질/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6.7
손님들이 선호해서	6.7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7 요약 및 시사점

- 2022년 1/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21년 1/4분기에 비해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축산물, 과채류, 양념채소, 엽근채소는 각각 3.7%, 2.5%, 1.9%, 0.3% 증가함.
- 2022년 2/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축산물, 엽근채소, 과채류, 양념채소는 각각 5.4%, 3.2%, 1.9%,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 깐양파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깐양파, 고춧가루 순으로 높음. 수입산 채소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72.1%)'가 가장 높게 응답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60% 이상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 쇠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2.1%p 증가한 10.4%로 나타남.

- 농산물을 전처리된 식자재로 구입하는 이유는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42.3%)하기 위해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점포 내 전처리할 인력 부족(20.8%),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자재 취급(15.0%)순으로 나타남.
 -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 업체의 39.1%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20.3%),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14.2%),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4.2%)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 후식과일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업체는 6.4%로 적으며, 제공하는 후식과일로는 오렌지, 사과, 파인애플, 배 순으로 나타남.



특별주제

- ① 로컬푸드 확대 효과와 인식 변화
- ② 국내 축사시설 현황과 시사점

로컬푸드 확대 효과와 인식 변화¹⁾

황윤재*, 박기환**

1. 서론

- 산업화·도시화 이전에는 인구 규모가 작고,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아서, 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 내에서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짐.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산업화 및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전국적 규모의 농식품 유통이 보편화되고, 국가 간 농식품 교역이 활발해짐.
- 농식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으로 인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 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먹거리 부족 문제가 해소됨. 그러나 먹거리에 기인한 경제, 사회 및 환경 측면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지난 2년여 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먹거리 문제가 더욱 심화됨.
 - 대량생산·대량유통에 따른 장거리 수송으로 농산물 품질이 저하되고 환경 부담이 증가함. 생산자와 소비자 간 단절로 인해 먹거리 생산기반에 대한 국민의 중요성 인식 저하됨. 또한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영세, 중소 생산자가 소외됨.
 - 코로나19 이후 식량 공급 불확실성과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계층 간 먹거리 부족과 불균형이 더욱 확대됨. 먹거리에 기인한 환경 문제가 지속되고, 농촌과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됨.

1) 이 글은 황윤재 외(2021)의 '로컬푸드 확대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 일부를 요약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yjhwa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kihwan@krei.re.kr)

-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과 먹거리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면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 이에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로컬푸드를 핵심 요소로 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농촌은 물론 지역 단위에서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함.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핵심 요소로 하는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함.
-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확대 정책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인식 변화를 생산자와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2. 로컬푸드 정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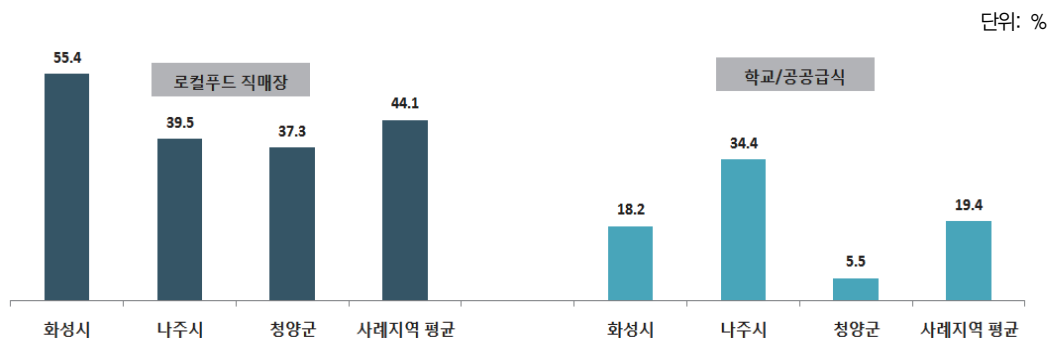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사업이 지역별 먹거리 여건·환경을 고려하여 수립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의지가 확산되면서 2022년 현재 전국적으로 1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2022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65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 55개)가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72개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7개, 기초자치단체 65개)가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증연구 등을 지원함. 또한 계획 수립·추진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이밖에 ‘지역 먹거리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농림사업을 묶어서 5년간 포괄적으로 지원(패키지 지원)하고, 푸드플랜 전담자문가(Family Doctor: FD)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중심 컨설팅 및 점검을 통해 추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에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근거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함. 또한 지역사회의 로컬푸드와 ‘지역 먹거리 계획’에 대한 관심을 유인하고,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로컬푸드 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함.
 - 로컬푸드 지수는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 지역경제 활성화, 먹거리 거버넌스 등의 다양한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관련한 실적을 측정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우수지역은 포상하고, 등급별로 정책 사업을 맞춤형 지원하는 데 활용함.

3. 농가의 로컬푸드 참여 효과 및 인식2)

3.1. 출하 현황 및 장점

- 지방자치단체들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직매장 또는 학교/공공급식을 활용함. 그러나 지역별 먹거리 여건 및 환경의 차이로 직매장 또는 학교/공공급식을 통한 생산자의 로컬푸드 출하 비중에는 차이가 있음.
 - 화성시 로컬푸드 생산자는 평균적으로 생산 농산물의 55.4%를 로컬푸드 직매장, 18.2%를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하여, 직매장 비중이 3배 이상 큰 편임(2020년 기준). 그러나 나주시는 직매장 출하 비중이 39.5%, 공공급식이 34.4%로 화성시에 비해 공공급식 출하 비중이 높은 편임.
 - 농촌형 지역인 청양군의 경우 학교/공공급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생산 농산물의 37.3%를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한 반면,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함.

생산 농산물 중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평균 출하 비중(2020년 기준)



주: 2021년 이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 2) 로컬푸드 확대와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추진이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와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지역인 충청남도 청양군, 도농복합도시지역인 경기도 화성시와 전라남도 나주시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생산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2021년 4월에서 6월까지 화성시 로컬푸드 참여 농가 117명, 나주시 81명, 청양군 115명 등 총 313명이 우편 설문조사에 참여함.

- 설문조사 결과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는 생산자의 가격 결정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생산자들은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출하하는 가장 큰 장점을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음’과 ‘소량 생산한 품목도 판매 가능함’이라고 인식하였음.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의 장점

단위: %

구분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음	다른 납품처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	규격품이 아닌 농산물 출하가 가능함	소량 생산한 품목도 판매 가능함	고정 납품처 확보가 가능함	인근에 매장/급식기관이 있어 운송비 등 비용이 적음	기타
화성시	30.4	5.5	7.0	28.6	24.6	3.0	0.9
나주시	34.9	8.3	10.0	28.8	15.7	2.2	0.0
청양군	24.5	8.7	5.6	33.4	20.4	5.9	1.5
평균	29.9	6.9	7.5	30.3	20.2	3.7	0.8

주: 1, 2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2:1)을 적용하여 합이 100%가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3.2. 재배품목 다양화 및 소득 증가 영향

-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출하는 로컬푸드 재배품목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사례지역 모두 로컬푸드 출하 이후 재배 품목 수가 증가했다는 생산자들이 감소한 비중보다 크게 높았음.
 - 화성시 생산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재배 품목 수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과반 이상인 59.3%로 평균 4.8품목 정도가 늘어난 반면, 감소한 생산자는 11.1%에 그쳤음.
 - 나주시와 청양군의 경우 품목 수가 증가한 생산자 비중이 각각 38.3%, 37.1%인데 비해, 감소한 비중은 4.3%, 3.2%에 불과하였음. 평균 증가 품목 수는 나주시가 2.4품목, 청양군은 5.0품목이었음.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재배 품목 수 증가 여부

단위: %, 품목 수

구분	증가함	평균 증가 품목 수	변화 없음	감소함	평균 감소 품목 수
화성시	59.3	4.8	29.6	11.1	3.2
나주시	38.3	2.4	57.4	4.3	1.5
청양군	37.1	5.0	59.7	3.2	1.5
평균	44.9	4.1	48.9	6.2	2.1

주: 2021년 이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로 인해 농가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음.
 -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생산자들은 화성시가 69.6%, 나주시 34.8%, 청양군 40.4%이었으며, 이들 생산자들의 평균 생산 증가율은 39~58% 정도였음.
 - 화성시 생산자의 85.7%가 농업소득이 증가하였으며, 평균 67.0%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나주시의 경우 72.3%의 생산자가 농업소득이 평균 3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청양군의 경우 농업소득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3.4%로 가장 높지만, 증가한 농가도 46.6%에 달하였음.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생산량 증가 여부

단위: %

구분	증가함	평균 증가율	변화 없음	감소함	평균 감소율
화성시	69.6	56.7	29.1	1.3	-
나주시	34.8	39.3	60.9	4.3	20.0
청양군	40.4	58.1	59.6	0.0	0.0
평균	48.3	51.4	49.9	1.9	10.0

주 1) 2021년 이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화성시의 경우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생산자는 1명이었으며, 감소율을 응답하지 않음.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이후 농업소득 증가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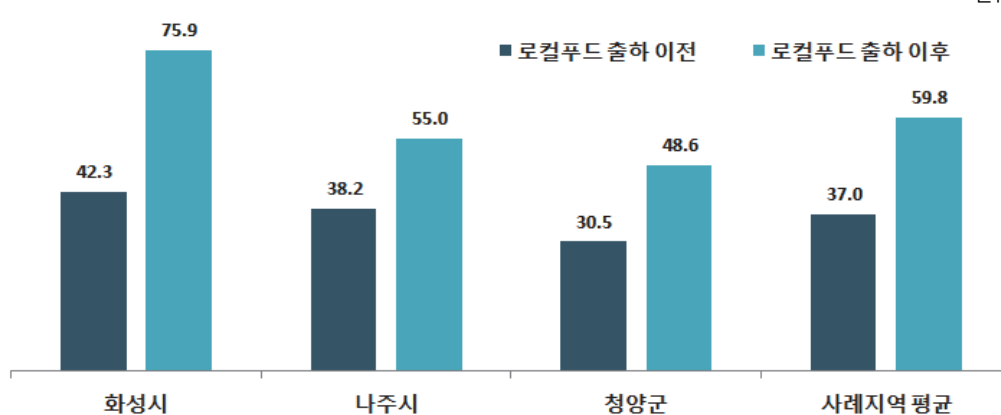
구분	증가함	평균 증가율	변화 없음	감소함	평균 감소율
화성시	85.7	67.0	13.0	1.3	-
나주시	72.3	34.0	27.7	0.0	-
청양군	46.6	39.4	53.4	0.0	-
평균	68.2	46.8	31.4	0.4	-

주 1) 2021년 이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화성시의 경우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생산자는 1명이었으며, 감소율을 응답하지 않음.

- 로컬푸드 확대에 의해 농가의 출하선이 지역 내로 이동함으로써 유통비용 최소화
 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로컬푸드 참여 이후 사례지역 생산자들의 지역 내
 출하 비중이 적게는 50% 정도에서 많게는 76%로 확대됨. 이는 농업소득에도 영
 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농업소득이 로컬푸드 참여 이후 증가한 결과와도 부합함.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지역 내 출하 비중 변화

단위: %



3.3. 로컬푸드 관련 긍정적 인식 전환 평가

-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들은 로컬푸드와 관련된 품질과 건강, 환경, 경제 및 지역 일자리 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음. 특히 로컬푸드 출하 이후 생산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환됨.
 -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생산자들은 로컬푸드 속성에 대해서는 평균 4.4~4.6점(5점 척도 기준),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균 4.3~4.6점 정도로 높게 평가함.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화성시 생산자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음.
 - 설문조사 결과 로컬푸드 속성 중에서 ‘지역 농산물 구매는 지역 생산자/경제에 도움이 된다’,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은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우선 지역 소비자에게 먹이고 싶어졌다’를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함.

생산자의 로컬푸드 속성과 인식 개선 영향 평가(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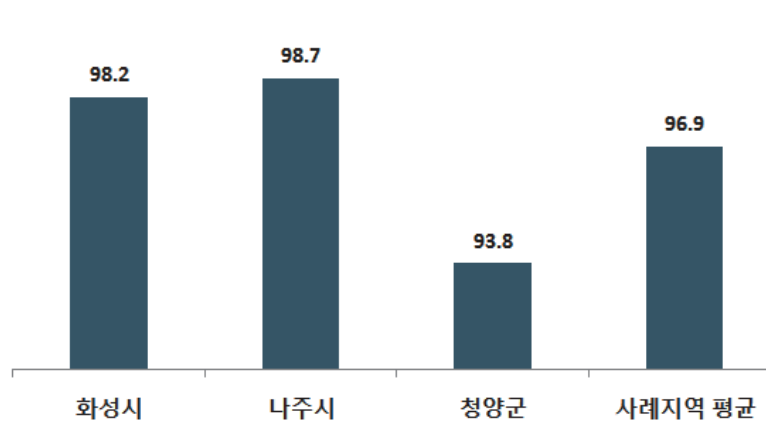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로컬 푸드 속성 평가	지역 농산물은 신선하다	4.6	4.6	4.5
	지역 농산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4.5	4.6	4.5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면 환경에 이롭다	4.5	4.4	4.2
	지역 농산물 구매는 지역 생산자/경제에 도움이 된다	4.7	4.7	4.5
	지역 농산물 소비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4.5	4.6	4.3
	평균(5점 척도 기준)	4.6	4.6	4.4
로컬 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	먹거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4.4	4.3	4.3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4.5	4.4	4.4
	먹거리가 환경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게 되었다	4.2	4.1	4.1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우선 지역 소비자에게 먹이고 싶어졌다	4.6	4.5	4.5
	지역 농업 여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4.5	4.5	4.3
	지역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이 생겼다	4.6	4.5	4.4
	평균(5점 척도 기준)	4.6	4.4	4.3

3.4. 로컬푸드 참여 충성도

-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들은 로컬푸드 확대를 통해 재배 품목 다양화, 판로 확보, 농업소득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체득하여 로컬푸드 참여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화성시 생산자의 98.2%, 나주시 98.7%, 청양군 93.8%가 향후에도 로컬푸드 출하를 계속할 의향이 있었음.
 - 향후 출하 의향이 있는 생산자들은 출하 품목수와 출하량을 증가시킬 예정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향후 직매장과 학교/공공급식을 통한 로컬푸드 출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의향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출하 품목 수·출하량 증가 의향

단위: %

구분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공공급식		
		증가시킬 예정	현재 수준 유지 예정	감소시킬 예정	증가시킬 예정	현재 수준 유지 예정	감소시킬 예정
품목 수	화성시	51.4	46.8	1.8	65.1	32.6	2.3
	나주시	54.5	40.3	5.2	74.0	20.0	6.0
	청양군	70.6	29.4	0.0	76.0	24.0	0.0
	평균	58.8	38.8	2.3	71.7	25.5	2.8
출하량	화성시	53.2	45.0	1.8	73.5	25.3	1.1
	나주시	54.8	41.1	4.1	70.0	26.0	4.0
	청양군	75.5	24.5	0.0	82.4	17.6	0.0
	평균	61.2	36.9	2.0	75.3	23.0	1.7

주: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4. 소비자의 로컬푸드 이용 현황과 인식³⁾

4.1. 로컬푸드 이용 실태 및 구매 품목

- 사례 지역 조사 결과 평소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정고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소비자들은 주로 주1회 또는 주2~3회 정도 직매장을 방문하고 있었음.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빈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화성시	6.9	27.7	47.5	5.9	9.9	2.0
나주시	17.8	39.6	25.7	9.9	3.0	4.0
청양군	8.0	26.0	29.0	14.0	14.0	9.0
평균	10.9	31.1	34.1	9.9	9.0	5.0

-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사례지역 소비자들은 전체 식료품 구입 금액의 30~40% 내외를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출하며, 직매장 1회 방문 시 평균 3~4만원 내외 정도를 지출하였음.
 - 직매장 지출 비중은 화성시가 평균 40.6%으로 상대적으로 크며, 청양군은 평균 27.5%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직매장 1회 방문시 평균 지출액은 화성시가 3만 8,416원이었음. 나주시는 직매장을 매일 방문하는 소비자 비중이 비교적 높아 1회 지출액이 2만 8,238원으로 가장 적었음. 청양군은 매장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평균 지출액은 4만 4,750원으로 타 지역보다 많았음.

3) 로컬푸드 확대와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추진이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와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4월에 화성시 101명, 나주시 101명, 청양군 100명 등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총 302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함. 청양군은 직매장을 통한 로컬푸드 판매가 인근지역의 로컬푸드 매장(대전 유성점)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매장 소비자를 조사함.

총 식료품 구입 금액 대비 로컬푸드 직매장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평균
화성시	5.9	38.6	39.6	9.9	5.9	40.6
나주시	23.8	31.7	17.8	11.9	14.9	38.3
청양군	42.0	30.0	14.0	8.0	6.0	27.5
평균	23.9	33.4	23.8	9.9	8.9	35.5

로컬푸드 직매장 1회 방문 시 지출하는 금액

단위: %, 원

구분	2만 원 미만	2만~4만 원 미만	4만~6만 원 미만	6만~8만 원 미만	8만 원 이상	평균
화성시	9.9	39.6	38.6	5.9	5.9	38,416
나주시	16.8	62.4	16.8	3.0	1.0	28,238
청양군	6.0	47.0	27.0	6.0	14.0	44,750
평균	10.9	49.7	27.5	5.0	7.0	37,135

- 일반 소비자가 대형유통업체나 슈퍼, 농협마트 등을 농식품 주요 조달처로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데 비해, 로컬푸드 이용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평소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식료품 구입 비중은 35~39%에 달하였음.

소비자 가구 식료품 주요 조달처

단위: %

구분	대형 유통 업체	슈퍼 마켓	재래 시장 (전통 시장)	편의점	농협 마트 (하나로 마트)	친환경 전문점	로컬 푸드 직매장	농가에게 직접 구매	가족/지인으로 부터 얻음	직접 재배 하여 조달
화성시	28.5	6.9	0.4	5.0	18.1	0.8	38.8	0.0	1.5	0.0
나주시	18.9	5.7	3.9	2.8	26.0	3.2	35.9	0.7	1.4	1.4
청양군	16.9	11.0	11.0	0.3	13.8	8.6	34.8	1.7	1.4	0.3
평균	21.4	7.9	5.1	2.7	19.3	4.2	36.5	0.8	1.4	0.6

주: 복수 응답(모두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수치임.

- 사례지역의 주요 생산 품목에 따라 소비자의 직매장 구매 품목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농산가공품 구매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음.

로컬푸드 직매장 구매 품목

단위: %

구분	주곡 (쌀)	잡곡	엽채 류	근채 류	조미 채소류	과일 류	과채 류	버섯 류	육류	계란 류	유제 품	건조 나물	농산 가공품	기타
화성시	4.3	6.1	14.4	12.8	13.7	8.3	12.8	5.2	8.6	7.9	2.0	0.7	1.6	1.8
나주시	2.3	3.7	16.5	8.4	11.1	13.8	14.0	8.2	8.6	4.9	3.3	3.9	0.6	0.6
청양군	2.7	7.8	15.6	5.1	6.2	8.0	14.9	7.6	10.0	6.7	4.9	4.2	5.3	1.1
평균	3.1	5.9	15.5	8.8	10.3	10.0	13.9	7.0	9.1	6.5	3.4	2.9	2.5	1.2

주: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직매장 판매 농산물의 신선도, 품질 및 생산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사례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직매장을 이용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신선한 농산물이어서’였음. 다음으로 ‘믿을 수 있는 생산자의 판매 상품이어서’와 ‘맛/품질이 좋은 농산물이어서’라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이유

단위: %

구분	지역 농업/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믿을 수 있는 생산자 의 판매 상품 이어서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 근처라 이용이 편리 해서	신선한 농산물 이어서	맛/ 품질이 좋은 농산물 이어서	건강에 좋은 농산물 이어서	안전한 농산물 이어서	가격이 저렴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음	기타
화성시	8.4	5.9	0.8	10.3	42.9	12.1	7.4	4.4	3.7	4.0	0.0
나주시	13.9	14.4	2.4	12.0	30.1	6.8	3.6	5.3	10.3	0.9	0.3
청양군	9.7	19.8	2.4	7.0	33.9	5.9	8.3	8.7	2.4	0.9	0.9
평균	10.7	13.4	1.9	9.8	35.6	8.3	6.4	6.1	5.5	1.9	0.4

주: 1, 2, 3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3:2:1)를 적용하여 100%로 환산한 결과임.

4.2. 구매 품목 다양화 및 식료품 소비 증가 영향

-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로컬푸드 확대가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됨.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 1회 방문 시 구매 품목 수와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크게 높았음.
 - 화성시(50.5%)와 나주시(65.6%)는 과반 이상의 소비자가 최근 구매 품목 수를 늘렸으며, 구매량을 늘린 소비자는 모든 지역이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됨.
-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최근에 구매 품목 수 및 구매량이 상당수 증가하면서, 식료품 구입액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화성시 소비자의 53.5%, 나주시 62.4%, 청양군은 48.5%가 증가하였음.

로컬푸드 직매장 첫 이용 시기 대비
최근 구매 품목 수/구매량/구입액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구분	증가함		변화 없음	감소함	
			증가율			감소율
방문 1회당 구매 품목 수	화성시	50.5	26.3	49.5	0.0	-
	나주시	65.6	28.3	34.4	0.0	-
	청양군	47.1	21.3	51.5	1.5	5.0
	평균	54.4	25.3	45.1	0.5	5.0
방문 1회당 구매량	화성시	54.5	28.1	45.5	0.0	-
	나주시	64.5	25.3	35.5	0.0	-
	청양군	50.0	18.5	48.5	1.5	5.0
	평균	56.3	24.0	43.2	0.5	5.0
식료품 구입액 대비 로컬푸드 비중	화성시	53.5	26.7	46.5	0.0	-
	나주시	62.4	27.7	36.6	1.1	70.0
	청양군	48.5	17.9	48.5	2.9	5.0
	평균	54.8	24.1	43.9	1.3	37.5

주: 2021년 이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 설문조사 결과 로컬푸드 확대가 소비자의 추가적인 식료품 소비를 어느 정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한 이후 가구 내 식료품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크게 높았음. 가구 내 식료품 소비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증가율은 20~26% 내외였음.
 - 화성시 소비자의 경우 직매장 이용 후 식료품 소비가 늘었다는 비중이 과반 이상인 51.5%, 나주시와 청양군은 각각 47.5%, 44.0%로 조사됨.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후 가구 내 식료품 소비량 증가 여부

단위: %

구분	증가함		변화 없음	감소함	
		증가율			감소율
화성시	51.5	26.3	48.5	0.0	-
나주시	47.5	27.3	50.5	2.0	20.0
청양군	44.0	20.4	55.0	1.0	5.0
평균	47.7	24.7	51.3	1.0	12.5

4.3. 로컬푸드 관련 긍정적 인식 전환 평가

- 로컬푸드 확산이 소비자들에게 사회·경제 및 농업 관련한 인식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한 후 소비자들의 지역의 농업 여건과 로컬푸드 소비에 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로컬푸드 확대가 지역 농업 기반 유지에도 일정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속성에 대해서는 평균 4.1~4.4점(5점 척도 기준),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균 4.0~4.4점 정도로 높게 평가함.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나주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사례지역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속성 중에서 ‘지역 농산물은 신선하다’, 로컬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싶어졌다’를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함.

소비자의 로컬푸드 속성과 인식 개선 영향 평가(5점 척도 기준)

단위: 점

구분		화성시	나주시	청양군
로컬 푸드 속성 평가	지역 농산물은 신선하다	4.6	4.5	4.2
	지역 농산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4.4	4.5	4.2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면 환경에 이롭다	3.7	4.3	4.0
	지역 농산물 구매는 지역 생산자/경제에 도움이 된다	4.3	4.5	4.1
	지역 농산물 소비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4.3	4.4	4.0
	평균(5점 척도 기준)	4.3	4.4	4.1
로컬 푸드가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	먹거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4.1	4.3	4.1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4.1	4.4	4.0
	먹거리가 환경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게 되었다	3.7	4.3	3.8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싶어졌다	4.5	4.5	4.1
	지역 농업 여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3.9	4.4	3.9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자부심이 생겼다	4.0	4.2	3.9
평균(5점 척도 기준)		4.1	4.4	4.0

4.4. 로컬푸드 이용률 향상

-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사례지역의 모든 소비자들이 향후에도 직매장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소비자의 직매장 만족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상당 비중의 소비자가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구매 품목 수와 구매량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의 향후 구매 의향이 현실화될 경우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판로 확보나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의 재배 품목 다양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수반할 있음. 또한 판매량이 증가될 경우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업 기반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음.

소비자의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및 구매 품목 수·구매량 증가 의향

단위: %

구분	이용 의향		구매 품목 수 및 구매량 증가 의향					
	있음	없음	구매 품목 수 증가 의향			구매량 증가 의향		
			감소시킬 예정	현재 수준 유지 예정	증가시킬 예정	감소시킬 예정	현재 수준 유지 예정	증가시킬 예정
화성시	100.0	0.0	0.0	38.6	61.4	0.0	30.7	69.3
나주시	100.0	0.0	0.0	32.7	67.3	0.0	39.6	60.4
청양군	100.0	0.0	0.0	38.0	62.0	0.0	41.0	59.0
평균	100.0	0.0	0.0	36.4	63.6	0.0	37.1	62.9

5. 결론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이 로컬푸드를 핵심 정책 요소로 추진되고 있음. 지난 5년 여간 정책 추진 결과 경제, 사회, 환경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농업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소규모 중소·영세농을 중심으로 주로 추진되는 지역 먹거리 정책이 보다 확산될 경우, 소규모 지역 농가와 지역 농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설문조사 결과 사례 지역의 생산자들은 로컬푸드 참여를 통해 생산자의 가격 결정권이 확보되고 안정적 공급처가 확보되며, 농업소득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향후에도 직매장을 통한 로컬푸드 구매를 확대할 것으로 응답함.
-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효과와 파급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은 주로 직매장 또는 학교/공공급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여건·환경적 차이로 인해 직매장 또는 학교/공공급식을 통한 지역 생산자의 로컬푸드 출하 비중은 차이가 있음. 지역별 여건·환경을 고려한 정책·사업의 전략적인 수립·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례 조사 지역인 나주, 화성시 등의 도농복합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인 청양군의 경우 학교/공공급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에 따라 학교/공공급식에 출하하는 로컬푸드 참여 생산자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역 생산 또는 소비 여건에 따라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공공급식을 통한 로컬푸드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농촌지역은 생산 규모에 비해 소비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도시 지역은 소비 규모는 크지만

생산 규모는 작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인접 시군 간 연계를 통한 로컬푸드 확대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소비기반에 비해 생산기반이 큰 농촌지역과 생산기반에 비해 소비기반이 큰 도시(도농복합) 지역과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공공급식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로컬푸드 주요 공급처로서 로컬푸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중요함. 그러나 아직까지 로컬푸드의 학교/공공급식 공급은 주로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일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경우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통한 로컬푸드 공급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이러한 한계는 농촌지역에서 클 수밖에 없음. 지역별로 공공영역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로컬푸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로컬푸드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관련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로컬푸드 공급 참여 또는 로컬푸드 이용 후 먹거리 및 지역 농업 관련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로컬푸드 공급·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로컬푸드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 등 지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로컬푸드의 가격·품질 측면에서의 이점 이외에도 로컬푸드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교육·홍보가 필요함.

– 지역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로컬푸드 공급·판매 기능 이외의 지역민, 이해관계자들의 로컬푸드에 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기능도 담당할 필요가 있음.

국내 축사시설 현황과 시사점¹⁾

이용건^{*}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

- 국내 축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FTA 등으로 인한 축산물 시장 개방,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과 함께 최근에는 가축사육 과정에서의 악취 및 분뇨 발생 등에 따른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과 관련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사업 내용: 축사 관련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시설·장비 비용 지원, 스마트 축산단지, ICT 시설지원 등
 - 2021년 사업비: 2,341억 원(융자 893억 원, 이차보전 1,225억 원, 자부담 223억 원)
 - 사업기간: 2009년~2024년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 농가는 최근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참여 농가는 4,677호이며, 사업 시행 초기에 참여 비중이 높음.
 - 사업 시행 초기 5년(2009년~2013년) 참여 농가 비중: 76.1%
 - 최근 5년(2016년~2020년) 참여 농가 비중: 8.8%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사시설 실태조사 분석 연구”(2022. 02.)을 기반으로 작성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yglee@krei.re.kr)

연도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농가 현황

단위: 호,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합계
농가수	688	788	625	785	674	349	354	179	118	74	34	9	4,677
비중	(14.7)	(16.8)	(13.4)	(16.8)	(14.4)	(7.5)	(7.6)	(3.8)	(2.5)	(1.6)	(0.7)	(0.2)	(100)

주: 농가 현황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전산시스템 기록이 있는 농가이며, 사업 완료농가 기준임

자료: 농협경제지구 내부자료.

- 지역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농가는 전남(광주)지역이 870호로 18.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서울·인천) 788호(16.8%), 경남 561호(12.0%) 등의 순으로 참여함.

지역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농가 현황

단위: 호, %

연도	강원	경기 (서울·인천)	충남 (대전·세종)	충북	경남 (울산·부산)	경북 (대구)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총합계
농가수	250	788	515	247	561	614	870	420	412	4,677
비중	(5.3)	(16.8)	(11.0)	(5.3)	(12.0)	(13.1)	(18.6)	(9.0)	(8.8)	(100)

주: 농가 현황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전산시스템 기록이 있는 농가이며, 사업 완료농가 기준임

자료: 농협경제지구 내부자료.

- 축종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농가는 양돈농가가 1,432호로 60.6%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한우 1,327호(28.4%), 낙농 660호(14.1%) 등의 순으로 참여함.

축종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농가 현황

단위: 호, %

축종	한우	낙농	양돈	산란계	육계(토종닭)	기타	총합계
농가수	1327	660	1432	428	509	321	4,677
비중	(28.4)	(14.1)	(30.6)	(9.2)	(10.9)	(6.9)	(100.0)

주: 농가 현황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전산시스템 기록이 있는 농가이며, 사업 완료농가 기준임

자료: 농협경제지구 내부자료.

2.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

2.1. 조사 방법

- 축종별 축사시설 실태조사는 한우농가, 낙농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함.
 -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농가(사업 완료 농가 기준)는 축종별로 양돈농가가 30.6%로 가장 많으며, 한우농가 28.4%, 낙농가 14.1% 순으로 많았음(세 개 축종 합계 73.1%).
- 축사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축종별 조사목표 농가 수는 총 1,000호로 하였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농가와 일반농가(비수혜농가)로 구분하여 조사함.
- 표본 추출 방법은 사육유형과 지역 및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조사 농가 수를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²⁾함.
 - 1차 층화: 축종(한우, 낙농, 양돈)을 기준으로 층화
 - 2차 층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층화(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농가, 일반농가)
 - 3차 층화: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지역)
- 축사시설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종별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해 사전 시범조사를 추진하였음. 이를 통해 조사 문항을 점검하고, 사전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본조사를 실시함. 본조사는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모바일 조사 및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두 달간 진행하였음.

2) 층화추출법은 모집단을 여러 개의 층으로 중복되지 않게 분류한 뒤, 각 분류된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층 내에서 동질적, 층 외에서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층화하면 단순임의 추출보다 추정치의 분산이 더 작아지므로 신뢰성 높은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주요 조사 내용

항목	내용	항목	내용
농가 현황	- 농장주 연령 - 후계자 보유 여부 - 사육유형 - 전업/복합 - 농가유형 - 사육경력, - 경영기록형태 및 기록 수행자 등	가축 방역 관련	- 사료 차량과 사료 회사 인원이 들어오는 장소 - 출하 차량 및 인원이 출하 위해 들어오는 장소 - 분뇨차량과 분뇨수집 인원이 들어오는 장소 - 농장 진입 시 방역시설 - 축사 앞 방역시설 현황
사육 현황	- 사육규모(월령별 사육두수) - (한우) 비육우 및 송아지 출하현황 - (양돈) 돼지 출하 현황(육성돈, 비육돈 등) - 노동투입현황(노동인원, 시간 및 일수) - (한우) 생산성 지표(비육우/번식우별 체중, 평균 산차, 1일 사료 급여량 등) - (양돈) 생산성 지표(이유/출하현황, 번식돈(모돈두당 산자수, MSY 등) - (낙농) 생산성 지표(두당 착유량, 평균산차, 1일 평균 사료 급여량 등)	농가 경영 현황 에너지 사용 및 ICT 장비 현황	- 농가 부채 현황 - 정책자금지원 받을 시 담보 설정 방법 - 고용 노동비, 방역처리비, 분뇨처리비 - 연간 에너지 사용량(농기계 작동, 냉난방, 조명 등) - 난방 사용 여부(난방기 보유 현황 등) - 냉방 사용 여부(냉방 방법, 축사별 냉방 가능 여부) - 축사 시설 ICT 장비 설치 여부 - 태양광 패널 설치 여부 및 설치 의향
축사 시설 현황	- 축사별 축사현황 및 면적 - 토지 소유 현황 - 축사형태(형태, 환기방식, 자붕개폐여부) - 축사 자재현황(골조, 벽면, 지붕) - 축사표준설계도 이용 여부 - 축사시설(급수기, 사료급여기 등) - 분뇨처리현황(수거방법 및 수거장소 등) - 축사별 노후화 및 신개축 희망 여부 - (낙농) 착유시설 형태 - 축산 장비 보유 현황 - 악취, 저감, 측정 관련 시설 보유 여부	축사 및 축산시설 신개축 의사 기타 축산 경영 관련	- 신·개축 희망 현황(신·개축 희망, 장소, 시설 등) - 신·개축 못하는 사유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인지도 - 축사시설 관련 지원사업 참여 여부 및 수혜연도 - 축사시설 관련 인증제 참여 여부 - 가축 사육에서의 어려운 점 - 향후 5년 내 경영 확대 및 축소 계획 - 축산업 경영으로 인한 민원 제기 경험 - 축사 내 소방시설 설치 여부

2.2. 축사시설 실태조사 농가 개요

-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 총 1,017호의 농가가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축종별로 한우농가 640호, 양돈농가 200호, 낙농가 177호를 조사하였음.

- 축종별 사육경력은 21년 이상이 축종별로 모두 6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농장주 연령도 축종별로 모두 60대가 가장 많았음. 한편 낙농가와 양돈농가는 전업농 비율이 높으나, 한우농가는 전업농 비율이 49.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농가는 548호(53.9%)이며, 비수혜농가는 469호(46.1%)로 나타남.

축사시설 실태조사 농가 특성

구분		한우농가	낙농가	양돈농가	구분		한우농가	낙농가	양돈농가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권역	경기/강원	116 (18.1)	70 (39.5)	47 (23.5)	농장주 연령	40대 이하	78 (12.2)	42 (23.7)	40 (20.0)
	충청	156 (24.4)	44 (24.9)	35 (17.5)		50대	149 (23.3)	33 (18.6)	56 (28.0)
	전라/제주	191 (29.8)	40 (22.6)	81 (40.5)		60대	317 (49.5)	91 (51.4)	90 (45.0)
	경상	177 (27.7)	23 (13.0)	37 (18.5)		70대 이상	96 (15.0)	11 (6.2)	14 (7.0)
농가 유형	일반농	507 (79.2)	125 (70.6)	158 (79.0)	사육 경력	5년 이하	29 (4.5)	7 (4.0)	3 (1.5)
	귀농인	31 (4.8)	6 (3.4)	7 (3.5)		6~10년 이하	43 (6.7)	21 (11.9)	10 (5.0)
	후계농	98 (15.3)	43 (24.6)	31 (15.5)		11~15년 이하	69 (10.8)	15 (8.5)	23 (11.5)
	영농법인	4 (0.6)	3 (1.7)	4 (2.0)		16~20년 이하	70 (10.9)	24 (13.6)	26 (13.0)
전업/ 복합	전업	314 (49.1)	154 (87.0)	172 (86.0)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21년 이상	429 (67.0)	110 (62.1)	138 (69.0)
	복합	326 (50.9)	23 (13.0)	28 (14.0)		수혜	286 (44.7)	98 (55.4)	164 (82.0)
휴 계 자	있음	133 (20.8)	59 (33.3)	57 (28.5)		비수혜	354 (55.3)	79 (44.6)	36 (18.0)
	없음	507 (79.2)	118 (66.7)	143 (71.5)					
전체		640 (100.0)	177 (100.0)	200 (100.0)	전체		640 (100.0)	177 (100.0)	200 (100.0)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축사시설 실태조사에 응답한 한우농가의 사육유형은 일관경영이 379호(59.2%)로 가장 많았으며, 비육경영은 135호(21.1%), 번식경영은 126호(19.7%)가 조사에 응답하였음. 양돈농가의 사육유형은 일관사육이 161호(80.5%)로 가장 많았으며, 비육경영은 31호(15.5%), 번식경영은 8호(4.0%)가 조사에 응답하였음.
- 낙농가는 원유 쿼터 주체별로 조합(서울우유, 낙협, 축협 등)에 납유하는 농가가 93호(52.5%)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유업체(매일, 남양, 빙그레 등)에 납유하는 농가는 44호(24.9%),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는 40호(22.6%)로 조사되었음.

축종별 사육유형 및 원유 쿼터 현황

한우농가(640호)			낙농가(177호)			양돈농가(200호)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일관경영	379	(59.2)	조합	93	(52.5)	일관사육	161	(80.5)
비육경영	135	(21.1)	유업체	44	(24.9)	번식경영	8	(4.0)
번식경영	126	(19.7)	낙농진흥회	40	(22.6)	비육경영	31	(15.5)
합계	640	(100.0)	합계	177	(100.0)	합계	200	(100.0)

주: 양돈농가의 번식경영은 번식경영 (1)(번식 ⇒ 분만)과 번식경영 (2)(번식⇒분만⇒새끼태지)의 합계이며, 비육경영은 비육경영 (1)(새끼태지 ⇒ 비육)과 비육경영 (2)(비육)의 합계임.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농가당 노동투입 인원은 축종별로 양돈농가가 5.01명으로 가장 많으며, 낙농가는 2.86명, 한우농가는 2.17명으로 나타남.

축종별 노동 투입 현황

구분		한우농가(640호)	낙농가(177호)	양돈농가(200호)
평균 고용 인력 (단위: 명)	가족인력(본인 포함)	1.81	2.00	2.17
	고용인력(내국인)	0.27	0.43	1.00
	고용인력(외국인)	0.09	0.43	1.84
	합계	2.17	2.86	5.01
노동시간 및 일수 (단위: 시간/1일, 일/주)	1일당 노동시간	6.17	7.71	7.58
	1주당 근무 일수	6.81	6.86	6.48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한우농가의 평균 사육 마릿수는 106마리이며, 성별을 기준으로 암소는 64.6마리, 수소는 41.4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남. 낙농가의 평균 사육 마릿수는 99.7마리이며, 그 중 경산우는 50.9마리로 나타남. 양돈농가의 평균 사육 마릿수는 2,810마리로 나타남.
 - 조사 농가의 사육 규모는 우리나라 평균 사육 규모보다는 크게 나타남. 이는 표본 설계에서 대규모 농가의 참여율이 높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여부를 고려했기 때문임.

축종별 사육현황

한우농가(640호)		낙농가(177호)		양돈농가(200호)	
구분	평균 마릿수 (마리)	구분	평균 마릿수 (마리)	구분	평균 마릿수 (마리)
암소 (번식우, 비육우)	64.6	송아지 및 육성우 (미경산우)	48.8	자돈 및 육성돈 (분만 ~ 14주령)	1,400.2
				비육돈 (15주령 이후)	1,099.5
수소 (거세우 및 비거세우)	41.4	경산우	50.9	모돈 (번식용 암돼지)	227.5
				기타 (웅돈, 후보돈)	82.5
합계	106.0	합계	99.7	합계	2,809.6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한우농가의 2020년 연간 비육우 출하 마릿수는 28.8마리이며, 송아지 출하 마릿수는 12.6마리로 나타남. 한편, 양돈농가의 연간 비육돈(15주령 이후) 출하 마릿수는 4,767.9마리로 나타남.

축종별 출하현황

한우농가(640호)		양돈농가(200호)	
구분	평균 출하 마릿수 (마리)	구분	평균 출하 마릿수 (마리)
비육우	28.8	자돈(분만 ~ 8주령)	191.1
송아지	12.6	육성돈(9주령 ~ 14주령)	168.9
		비육돈(15주령 이후)	4,767.9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2.3. 축사 및 축사시설 현황

- 한우농가의 축사 동수 합계는 평균 2.6동이며, 축사면적은 1,743㎡로 조사되었음. 한우농가의 축사 종류별 평균 사용 연수는 ‘통합우사(축사를 통합하여 운영)’가 18.8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식우사’ 15.5년, ‘비육우사’ 14.9년, ‘퇴비사’ 14.6년, ‘분만사’ 13.3년 등으로 나타남.

한우농가 축사 동수 및 사용 연수

구분	축사 동수		축사면적		축사 사용 연수	
	평균(동)	응답 수	평균(㎡)	응답 수	평균(년)	응답 수
번식우사	1.5	(203)	1,318.4	(184)	15.5	(203)
비육우사	1.6	(217)	1,342.2	(189)	14.9	(217)
통합우사	1.7	(392)	1,282.2	(384)	18.8	(392)
축산시설(분만사)	1.0	(82)	201.0	(65)	13.3	(82)
축산시설(퇴비사)	1.2	(190)	261.3	(161)	14.6	(190)
기타	1.0	(4)	181.3	(3)	21.5	(4)
합계	2.6	(640)	1,742.5	(585)	-	-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한우농가의 축사 형태는 ‘개방’이 가장 많았으며(번식우사 56.6%, 비육우사 60.1%), 다음으로 ‘원치 커튼’으로 나타남. 축사의 환기 방식은 ‘자연 환기’가 가장 많았으며(번식우사 56.0%, 비육우사 61.2%), 다음으로 ‘자연 기계 혼합형’이 많았음. 축사 지붕 개폐 여부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한우농가 축사별 형태

구분		한우 번식우사(511)		한우 비육우사(536)	
		응답 수	(%)	응답 수	(%)
축사형태	개방	289	(56.6)	322	(60.1)
	원치 커튼	207	(40.5)	201	(37.5)
	기타	9	(1.8)	6	(1.1)
	스마트 축사	6	(1.2)	7	(1.3)
환기방식	자연환기	286	(56.0)	328	(61.2)
	자연 기계 혼합형	207	(40.5)	188	(35.1)
	자동제어(CT)	18	(3.5)	20	(3.7)
지붕 개폐 여부	불가능	416	(81.4)	429	(80.0)
	가능	95	(18.6)	107	(20.0)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낙농가의 축사 동수 합계는 평균 4.5동이며, 축사면적은 3,154㎡로 조사되었음. 낙농가의 축사 종류별 평균 사용 연수는 ‘육성우사’가 15.7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유우사’ 15.0년, ‘착유우사’ 14.4년, ‘통합 축사’ 13.8년, ‘퇴비사’ 13.7년, ‘착유실’ 13.2년, ‘분만사’ 13.0년 등으로 나타남.

낙농가 축사 동수 및 사용 연수

구분	축사 동수		축사면적		축사 사용 연수	
	평균(동)	응답 수	평균(㎡)	응답 수	평균(년)	응답 수
착유우사	1.3	(87)	1,444.8	(65)	14.4	(87)
육성우사	1.2	(76)	691.2	(55)	15.7	(76)
건유우사	1.0	(66)	545.8	(46)	15.0	(66)
통합	1.8	(90)	2,365.7	(76)	13.8	(90)
축사시설(착유실)	1.0	(130)	407.3	(98)	13.2	(130)
축사시설(분만사)	1.0	(74)	203.4	(52)	13.0	(74)
축사시설(퇴비사)	1.1	(127)	388.3	(94)	13.7	(127)
기타	1.0	(7)	882.0	(4)	12.1	(7)
합계	4.5	(177)	3,153.8	(150)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낙농가의 축사 형태는 ‘톱밥 우사’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음. 축사의 환기 방식은 ‘자연 환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연 기계 혼합형’이 많았음. 축사 지붕 개폐 여부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낙농가 축사별 형태

구분		착유우사(177)		건유우사(142)		육성우사(158)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축사형태	톱밥 우사	160	(90.4)	130	(91.5)	144	(91.1)
	원치커튼	6	(3.4)	6	(4.2)	6	(3.8)
	프리 스톨	6	(3.4)	3	(2.1)	3	(1.9)
	기타	4	(2.3)	3	(2.1)	4	(2.5)
	스마트 축사	1	(0.6)	-	-	1	(0.6)
환기방식	자연 환기	105	(59.3)	80	(56.3)	88	(55.7)
	자연 기계 혼합형	63	(35.6)	55	(38.7)	62	(39.2)
	자동제어 (ICT)	9	(5.1)	7	(4.9)	8	(5.1)
지붕 개폐 여부	가능	23	(13.0)	18	(12.7)	16	(10.1)
	불가능	154	(87.0)	124	(87.3)	142	(89.9)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양돈농가의 축사 동수 합계는 평균 8.4동이며, 축사면적은 4,227m²로 조사되었음. 양돈농가의 축사 종류별 평균 사용 연수는 ‘임신돈사’가 16.3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합 축사’ 15.6년, ‘자돈사’와 ‘육성돈사’, ‘퇴비장’이 14.9년, ‘분만돈사’ 14.8년, ‘비육돈사’ 14.7년, ‘액비장’ 14.3년, ‘정화장’ 12.3년 등으로 나타남.

양돈농가 축사 동수 및 사용 연수

구분	축사 동수		축사면적		축사 사용 연수	
	평균(동)	응답 수	평균(m ²)	응답 수	평균(년)	응답 수
임신돈사	1.5	(125)	1,186.8	(83)	임신돈사	16.3
분만돈사	1.5	(127)	638.6	(81)	분만돈사	14.8
자돈사	1.9	(118)	589.0	(74)	자돈사	14.9
육성돈사	1.5	(124)	725.7	(82)	육성돈사	14.9
비육돈사	2.2	(131)	1,837.6	(89)	비육돈사	14.7
통합	3.3	(46)	3,712.7	(30)	통합	15.6
퇴비장	1.2	(171)	407.6	(114)	퇴비장	14.9
액비장	1.4	(115)	434.7	(68)	액비장	14.3
정화장	1.1	(73)	327.5	(40)	정화장	12.3
합계	8.4	(200)	4,227.3	(176)	-	-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양돈농가의 축사 형태는 ‘무창돈사’가 가장 많았음(분만돈사 82.4%, 육성돈사 78.8%, 비육돈사 76.3%). 축사 환기 방식은 ‘자동제어(기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연 기계 혼합형’이 많았음.

양돈농가 축사별 형태

구분		분만돈사(159)		육성돈사(160)		비육돈사(169)	
		응답 수	(%)	응답 수	(%)	응답 수	(%)
축사 형태	무창	131	(82.4)	126	(78.8)	129	(76.3)
	반무창	15	(9.4)	17	(10.6)	20	(11.8)
	원치커튼	12	(7.5)	16	(10.0)	19	(11.2)
	기타	1	(0.6)	1	(0.6)	1	(0.6)
	스마트축사	-	-	-	-	-	-
환기 방식	자연환기	29	(18.2)	34	(21.3)	40	(23.7)
	자연기계혼합형	54	(34.0)	54	(33.8)	58	(34.3)
	자동제어(기계)	72	(45.3)	69	(43.1)	68	(40.2)
	ICT	4	(2.5)	3	(1.9)	3	(1.8)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2.4. 축사 및 축사시설 신개축 의사

- 각 축종 농가별 축사 및 축사시설의 신·개축 의사를 조사한 결과 신축을 희망하는 농가 비율은 ‘낙농가’가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우농가’는 11.9%, ‘양돈농가’는 11.5%로 나타남. 축사 개축을 희망하는 농가는 ‘양돈농가’ 17.0%, ‘한우농가’ 16.6%, ‘낙농가’ 15.8%로 나타남.
- 축사 수리를 희망하는 농가 비율은 ‘한우농가’가 15.3%로 가장 많으며, ‘낙농가’ 13.0%, ‘양돈농가’ 8.0% 순이었음. 신·개축을 희망하지 않는 농가 비율은 ‘양돈농가’ 63.5%, ‘한우농가’ 56.3%, ‘낙농가’ 50.8%로 나타남.

축사 신·개축 희망 여부

구분		신축	개축	수리	희망 없음	합계
한우	응답 수	76	106	98	360	640
	(%)	(11.9)	(16.6)	(15.3)	(56.3)	(100.0)
낙농	응답 수	36	28	23	90	177
	(%)	(20.3)	(15.8)	(13.0)	(50.8)	(100.0)
양돈	응답 수	23	34	16	127	200
	(%)	(11.5)	(17.0)	(8.0)	(63.5)	(100.0)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신·개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개축을 희망하는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축사노후’에 응답한 농가는 한우농가 162호, 낙농가 60호, 양돈농가 46호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설노후’가 한우농가 140호, 낙농가 42호, 양돈농가 29호로 나타남.

축사 신·개축 희망 사유

단위: 응답 수

구분	사례수	축사노후	시설노후	구조변경	ICT 스마트 축사	동물복지 축산인증
한우	(280)	162	140	49	40	19
낙농	(87)	60	42	25	18	12
양돈	(73)	46	29	15	15	8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신·개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원하는 신·개축 장소를 조사한 결과 현재 축사가 위치한 장소에서 신·개축 희망 농가는 ‘양돈농가’ 91.8%, ‘한우농가’ 90.7%, ‘낙농가’ 89.7%로 대부분이었음.

축사 신·개축 희망 장소

구분	사례 수	현 위치		이전	
		응답 수	(%)	응답 수	(%)
한우	(280)	254	(90.7)	26	(9.3)
낙농	(87)	78	(89.7)	9	(10.3)
양돈	(73)	67	(91.8)	6	(8.2)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계획대로 신·개축을 못하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 ‘담보여력 부족’과 ‘축산경기 불황’에 응답한 농가가 많았으며, 양돈농가의 경우는 ‘민원 우려’에 응답한 농가가 다른 축종에 비해 많았음.
 - 한우농가의 경우 ‘담보여력 부족’이 165호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경기 불황’ 110호, ‘후계농 미보유’ 79호, ‘민원 우려’ 54호 등으로 나타남.
 - 낙농가의 경우 ‘담보여력 부족’이 47호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경기 불황’ 37호, ‘민원 우려’ 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양돈농가의 경우 ‘축산경기 불황’이 49호로 가장 많았으며, ‘담보여력 부족’ 43호, ‘민원우려’ 39호 등으로 나타남.

계획대로 신·개축을 못하는 사유

단위: 응답 수

구분	사례 수	담보여력 부족	축산경기 불황	후계농 미보유	민원 우려	무허가 축사	기타
한우	(360)	165	110	79	54	11	22
낙농	(90)	47	37	8	23	5	11
양돈	(127)	43	49	11	39	4	6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기타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폐업하기 위해서, 개발구역이라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등이 있음.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2.5. 축사 및 축산시설 관련 사업 참여계획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우농가’는 44.7%가 참여하였으며, ‘낙농가’는 55.4%, ‘양돈농가’는 82.0%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됨. 사업 수혜 후 경과 연도는 낙농가가 8.2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한우농가와 양돈농가는 7.3년으로 나타남.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여부 및 수혜 연도 현황

구분	사례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여부				참여 농가 수혜 연도 현황
		참여		미참여		평균 경과 연도
		응답 수	(%)	응답 수	(%)	
한우	(640)	286	(44.7)	354	(55.3)	7.3년
낙농	(177)	98	(55.4)	79	(44.6)	8.2년
양돈	(200)	164	(82.0)	36	(18.0)	7.3년

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수혜 연도 현황은 조사기준 연도인 2020년 이전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 및 재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낙농가’가 50.8%로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양돈농가’ 47.5%, ‘한우농가’ 43.4% 순으로 나타남. 한편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 및 재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낙농가’가 42.4%로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한우농가’ 34.8%, ‘양돈농가’ 33.0%로 나타남.

축사 및 축산시설 관련 사업 참여 및 재참여 의향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응답 수	(%)	응답 수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한우	(640)	278	(43.4)	362	(56.6)
	낙농	(177)	90	(50.8)	87	(49.2)
	양돈	(200)	95	(47.5)	105	(52.5)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한우	(640)	223	(34.8)	417	(65.2)
	낙농	(177)	75	(42.4)	102	(57.6)
	양돈	(200)	66	(33.0)	134	(67.0)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2.6. 축산업 경영으로 인한 민원 현황

- 축산업 경영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민원을 제기 받은 농가 비율은 ‘양돈농가’가 29.5%로 가장 높으며, ‘낙농가’ 21.5%, ‘한우농가’ 8.9%로 조사되었음. 민원을 제기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농가당 평균 민원 제기 횟수는 ‘양돈농가’가 10.5회로 가장 많으며, ‘한우농가’ 2.5회, ‘낙농가’ 2.2회로 나타남.

축산업 경영으로 인한 민원 경험 및 횟수

구분	축산업 경영으로 인한 민원 경험					민원 제기 횟수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평균(회)
		응답 수	(%)	응답 수	(%)		
한우	640	57	(8.9)	583	(91.1)	57	2.5
낙농	177	38	(21.5)	139	(78.5)	38	2.2
양돈	200	59	(29.5)	141	(70.5)	59	10.5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 민원을 제기 받은 경험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민원 제기 유형을 조사한 결과 ‘축산 악취’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도 비교적 많았음.
- 민원에 대한 조치는 ‘민원 취하’나 ‘제도’ 조치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고발’이나 ‘과태료’ 조치에 대한 응답 비중은 비교적 낮게 나타남.

민원 제기 유형

단위: 응답 수

구분	사례수	축산악취 문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소음 문제	기타
한우	57	45	12	6	4
낙농	38	25	14	2	2
양돈	59	54	8	2	0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축사시설 실태조사 결과(2020년 기준).

3. 시사점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환경문제 완화 및 방역 강화가 필요함. 조사 결과 민원 경험 비중은 ‘양돈농가’ 29.5%, ‘낙농가’ 21.5%, ‘한우농가’ 8.9%였으며, 민원 제기 유형은 ‘축산 악취’가 가장 많았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축산 환경을 개선에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 악취 저감 등 환경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악취 저감뿐만 아니라 방역 강화를 위해 축사 및 축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지원이 효과적임. 축산농가의 환경문제 완화 등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가 아닌 사회적비용 절감과 관련되므로 일부 보조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환경문제 완화 및 방역 강화가 필요함. 조사 결과 ‘ICT 스마트 축사’를 위해 신·개축을 희망하는 농가는 낙농가 23.9%, 양돈농가 20.5%, 한우농가 14.3%로 나타남. 국내 축사 및 축산시설을 ‘ICT 스마트 축사’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참여 확대 및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로 사업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참여 농가는 최근 들어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시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참여 의향이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참여했으며, 2019년부터는 국고지원 없이 용자로 전환된 것도 원인으로 평가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아울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소규모 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소규모 농가 맞춤형 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